朝鮮日報
夕刊 八日(水)
本報朝夕刊十二頁

西南抗日裡面에 共産黨暗躍判明

—全國卅七名代表極秘裡에上海서密議— 蘇聯對日戰備의 一翼

【上海發電】中央 對西南抗爭은 그後 一面에있서 緩急 明暗 巧妙한裏面工作을 反復하며 兩派가 依然武裝對峙狀態를 繼續中인데 이積極的解決은 드듸어 二中全會後로 延期될 形勢인바 西南이 드는抗日의 烽火는 그後 全國民衆에게 異常한 反響을 이르켜 一般으로憂慮한 排日感情을 再爆發시킬 危機에까지 爛熟하엿다

即 全國主要都市의 軍、政、學、財 其他各言論出版 各文化團體等 各界各層을『抗日救國』의旗下에 總動員하야 이를廣汎한 統一抗日戰線으로 結成하려는 運動이 最近 上海、廣東兩地를 中心으로 俄然具體化될形勢에잇스며 實際로 六月廿五日 上海某所에 全國으로부터 此等各界代表 三十七名이 極秘裡에 參集하야 抗日救國統一戰線結成의 連席會議를 開催하고 運動의 具體的方略에 關하야 協議討論한 事實이 判明되엿다 右會議에는 西南派代表는 各이 參加한 모양인데 西南派로서는 이運動에 拍車를 加하야 有利하게解決하려고 하고잇는모양이어서 二中全會에 西南派代表 六名의 出席을 應諾한것도 同全會席上에서『一切의 救國民衆運動을 承認하고 全國民衆을 抗日戰線으로 動員하라』其他 數項에 亘한 抗日反滿의 積極的議案을 提出하고 이에 對處할 中央의 態度如何로 抗日民衆運動을 反中央運動으로 轉化하려는 意圖라고 傳하는데 右統一戰線化의 各團體의 抗日意識 乃至 一般民衆의 抗日感情이 西南派意圖와가티 反中央運動으로 轉化할는지 그 與否가 疑問이며 또 中央의 民衆運動取締도 嚴重하므로 이것이 排日貨、排日本人의 直接行動을 伴하는 運動에 까지 發展될는지 그 與否도 疑問이라고하야 結局 熱注深刻對日宣傳을主로한 對日文化鬪爭의 形態로 發展할것이라고 보고잇다。그런데 如斯한 澎湃한 抗日氣勢昂揚의趨勢에잇서서 가장 重大視되고잇는것은 此種民間抗日運動의 背後에 動하고잇는 第三인터내쇼날의 손으로 抗日救國統一戰線結成은 압서 中國共產黨이 主張宣傳해온것이며 廿五日의 上海抗日連席會議에 出席하엿다고 傳하는 重要멤버는 蘇聯系와 共產黨關係者가 만흔事實은 第三인터내쇼날이 如何히 强力한 支持와 指導를 與하고잇는가를 窺知케하는것이다 그리고 昨秋의 北中自治運動反對의 學生運動을 蘇聯의 資金으로 操縱하엿다고 傳하는 問題의人物 鄒文儀氏가 最近 再次 歸國하야 上海에잇는것도 右運動의 具體化에 어떠한 關連이 잇는것이라고 보고잇는데 最近의 蘇聯의 中國에잇서서의 各文化團體에 對한 活動의 積極化와함께 此種抗日戰線의 統一運動의 動向은 今後 蘇聯의 對日戰備의 重要한 一翼이라는 觀點에서 今後의 推移를 注目하는것이 [illegible] 重要視되라고한다。

皇太子殿下 葉山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八日 順宮殿下와함께 葉山御用邸로 가시어 今夏를 凉風의 海濱에서 보내시기로 되엇다。이날 殿下께서는 御父母陛下께 暫時 御離別의 御對面을 하시고 順宮殿下와 御用列車로 午前九時五十五分 宮城御出門 同十時十分 東京驛御發 同十一時十分 逗子驛御着 葉山御用邸에 行啓하시엇다

兩廣軍全面的으로 中央軍에게 壓倒

悲觀論이 漸次濃厚

【廣東七日發同盟】南部江西駐屯의 余漢謀軍三個師는 六日夜 第三師를 先頭로 第二師、第一師의 順으로 廣東省境에 向하야 撤退를 開始하엿다 一方 貴州南部獨山一帶의 廣西軍은 이미 省內에 撤退를 開始하엿다고 稱하야 貴州、湖南、福建、雲南、四省에 亘하야 이미 戰略的展開를 終了한 칭신 有勢한 中央軍때문에 方今 兩廣軍은 全面的으로 壓倒되어 겨우 湖南省南部의 一角에서만 攻勢的陣勢를 示하고잇는데 不過하다 이리하야 廣西軍은 結局 守勢에 轉할밧게업다고 보인다

陳濟棠、李宗仁、白崇禧氏 等의 急激한 軍備擴充과 省境의 必死的防備强化에도 不拘하고 軍事行動의 全面的退嬰化는 日復日加하고 또 停滯된 財政難特히 今回의 財政窮乏에 直面하야 悲觀論이 各方面에 濃厚하게되엇다

米大統領選擧戰

民主?共和?

攻勢的共和、防備的民主

兩大政黨의政綱內容 ②

韓普容

各政黨全國大會에서는 正副大統領候補者를 選擧하기 前에 먼저 黨으로서의 政綱草案을 作成하야 大會를 通過식힌다。그리고 大統領候補로 當選된 사람은 그政綱을 遵守할것을 盟誓하게되며따라서 平素에主張或은 宣傳하던 個人의 政見과 決定된黨으로서의 政綱과 合致되고안되고 하는것이 候補 當選如何에 至大한 關係가 잇게되다。그러므로 어느 한사람을 立候補식히려는 그『그룹』에서는政綱을作成할때 부러內定한 그사람의 平素主張에 合致한 政綱을 作成하려고 努力하는것이다。그러나 元體有力한 候補로말하면 黨의 中心勢力을 움즉이는 힘을 갓게되므로 政綱作成에잇서 自己의 平素主張大部分을 吹込할수잇는것이다。이番 兩大政黨의『콘벤슌』으로 말하드래도 共和黨政綱에는 랜드ㄴ氏의 選擧戰 總指揮者 하밀톤氏의 努力으로 랜든氏의 平素政見이 만히 包含되엿고 民主黨으로 말하면 루ㅡ즈벨트氏의 選擧戰總指揮파레이氏(民主黨首兼遞信長官)가 루大統領과 協議하여作成한 政綱草案을 필라델피아大會에 와서 一言半辭의 修正도엄시 그대로 通過식혓다는 事實은 這間實情을 말하여 주는것이다。

選擧戰에잇서서 勝敗를 決定하는 要素가 여러가지가 잇지마는 中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것이 『콘벤슌』即政綱임은 贅言을 要치안는다。그러면 오는 四個年동안 米國天下의 覇權獲得을 目標로 兩大政黨이 내어건 政綱은 어떠한가?

爲先 兩大政黨의 政綱을 그分量으로 보건대 이번 필라델피아黨大會에서 決定된 民主黨政綱은 二千五百語(Word)로 形成되엿는데 이것을 前期(一九三二)總選擧때의 同黨政綱 一千六百語에 比하면 九百語가 더 만타。他面에 잇서서 이번 클리블랜드大會에서 採擇된 共和黨의 政綱分量은 二千九百六十五語로 民主黨의 그것에 比하야 三百六十餘語가 더 만흔셈이나 이것을 同黨의 前期 總選擧政綱 八千四百語에 比較視하면 實로 五千四百餘의 減少라는 英斷的 縮少를 斷行한것이다。조흔政綱을 만히 羅列하는것이 選擧大衆의 利害를 分明히 하는데는 有效할것이나 事實에잇서서는 一政黨의 主義主張을 國民大衆에게 明白하게『엇필』하는데는 大衆이 가장要求하는 몃項目의 政綱을 簡單明瞭 이히 揭揚하는것이 群衆心理에 符合되는 가장有利한 方法이다。今番 共和黨政綱이 英斷的으로 縮少簡便된理由도 여게잇슬것이다。

다음 民主、共和의 兩黨政綱內容을 살펴보건대 共和黨은 現在 野黨이니만치 政府黨인 民主黨攻擊을 爲하야는 무엇보다도 루ㅡ즈벨트政府의 生命인 뉴ㅡ딜政策攻擊을 爲主로 하엿고 民主黨은 依然 뉴ㅡ딜政策의 繼續을 高調하야 共和黨의 攻擊에 對한防禦的內容으로 그政綱을 作成하엿다。여게서 兩大政黨의 主要政綱을 比較對照하면 다음과갓다。

財政問題 財政의 均衡을 圖하여야한다는 主旨에 잇서서는 共和黨이나 民主黨이나 모다同一하나 共和黨은 支出의 大削減에 依하야 即時 均衡을 圖할것이라하나 如何한 費用을 削減할것인가하는 具體的問題에는 不觸하고 民主黨은 景氣回復에 依하야 政府支出의 削減을 圖하고 均衡狀態로 漸進한다는 漫然한方針을 表示하엿다。

通貨問題 通貨問題에잇서서도 兩黨이 모다 健全通貨를 要望하고 잇스나 共和黨은 어데까지든지 健全通貨制度를 固守한다하야 平價切下에 反對하는 同時에 弗價決定에 關한 議會權限 復歸를 主張하엿스나 民主黨은 다만 金本位問題에는 言及치안코 通貨價値의 安定을 力說하엿슬뿐이다。

關稅問題 共和黨은 루ㅡ즈벨트의 善隣政策에 基한 現行互惠通商諸條約의 破棄를 主張하고 變化잇는 世界情勢에 應하야 融通性이잇는 關稅制를 復活하자함에 反하야 民主黨은 共和黨主張을 全面的으로 反對한다。

農業政策 共和黨은 生産統制에 關한 모든 制限을 撤廢하려함에 反하야 民主黨은 國內國外市場에잇서 生産을 統制하려한다。共和黨은 農民의 收入을 增加하야 工業品價格과의 均衡을 圖하기爲하야 農産物輸出補助制度를 主張하나 民主黨은 國內配定制度(國內消費高를 豫想하고 그에應하야 生産을 統制하는案)의 繼續을 主張한다。

勞働問題 共和黨은 憲法을 修正치안코 婦女兒童의賃金、勞働時間制限等을 主張하고 勞働交涉權도 認定하나 御用組合(Company Union)을 爲主하고 勞働者의 團結權及團體交涉權을 認定하엿다。

失業問題 失業救濟에 關하야 共和黨은 此를 州政府에 一任할것이오 聯邦政府는 다만 各州에 그助成金을 交付할것뿐이라함에 對하야 民主黨은 失業救濟에 關한 金融諸規定은 이것을 繼續助長하는 同時에 右金融救濟權限을 聯邦政府로부터 州政府에 移讓하려는 共和黨의 示唆는 絶對로 拒否한다。

外交政策 兩黨이모다 國際平和를 强調하면서 國際聯盟、國際裁判所 加入問題에는 言及을 避하엿다。

其他問題 企業獨占에 對하야는 兩黨이모다 反對意思를 表示하엿고 陸海空軍의 軍備擴張도 共和黨에서 特히 强調하여스나 現政府의 政策으로보와 民主黨도 亦是 이點에는 反對치안는 모양이다。(繼續)

(寫眞上은 루ㅡ즈벨트氏의 選擧戰總指揮 파레이氏、下는 랜든氏의 選擧戰總指揮 하밀톤氏)

馬場藏相近近 軍部南大臣과會見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豫算編成方針決定에 關하야 十三日以後 臨時閣議를 開催하야 陸海軍省의 新軍備計畫에 關한 國策을 審議하야 各閣僚의 國策提案을 기다리 最後로 大藏省案으로부터 國財政計畫의 根本方針을 說明할터인데 馬場藏相은 明年度財政計畫에 軍大關係를 가진 國防計畫의 內容을 重要視하고 近近 寺內陸相과 永野海相과 個別的으로 會見하야 諒解를 求하는 交涉을 行하기로 되엇다 即 馬場藏相은 七日의 國策審議終了後 非公式으로 陸海軍兩大臣에게 陸海軍備計畫에 關한 具體案을 閣議에 說明하기前에 그大綱을 提示해주기바란다 大藏當局으로서는 兩省計畫에 基하야 財務當局으로서의 最後的인 意見을 決定하기 爲하야 [illegible] 생각이다 라고 [illegible] 十日까지 [illegible]

蘇聯黑海艦隊의 다다넬스海峽自由通過는

北海海軍均衡顚覆

몬트로會議의英國態度에 獨、英獨海軍協定改訂提議

【倫敦七日發同盟】獨逸政府는 몬트로會議의 推移에 對하야 靜觀的態度를 가지것이라고 보고잇던바 蘇聯黑海艦隊의 行動에 關連하야 아미 英國政府에 對하야 某種의 提議를 한것이 判明되엇다고 外相노이랏트氏가 賜暇로 倫敦에 歸還하는 英國大使 핍프스氏와 過般 會見하고 海峽條約改訂에 際하야 獨逸外務省에서 同大使와 會見하고 海峽條約改訂의 結果 英獨兩國의 海軍協定도 當然 改訂할 必要가 잇게되엇다는 旨를 通告하엿다고 하며 倫敦駐剳獨逸大使館參事官 비스맑公도 最近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同僚의 報告를 傳達하고 如左히 述하엿다고 解釋되다

다다넬스海峽條約改訂의 結果 蘇聯黑海艦隊가 自由로 다다넬스海峽을 通過하야 地中海에 出動할수잇게되면 佛蘇兩國間의 相互援助條約에 基하야 佛國政府는 地中海의 防備를 蘇聯海軍에 맛기고 地中海의 海軍力을 北海에 移動할수가 잇슬것이다 또 蘇聯政府가 單獨으로 黑海艦隊를 移動할境遇에는 目的地는 발틱海라고 보인다 이어느境遇에도 北海의 海軍力均衡은 顚覆되게될것이다 以上의 事態가 實現되면 獨逸政府는 英國政府와 海軍協定을 締結한當時에 比하야 情勢는 一變하야 獨逸海軍의 重大脅威에 當面하게되엇다 如斯한 境遇에는 海軍協定의 修正이 必要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以上외 軍大[illegible]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相當히 [illegible]하야 獨逸政府의 意見에 對하야 如左한 反駁的回答을 發하얏다고 解釋되다

一、蘇聯海軍艦隊는 이미 現在 다다넬스 海峽通行의 自由가 保障되어잇다 따라서 新條約이 成立되더라도 情勢에는何等 變化가업다 또 몬트로會議에서 蘇聯海軍이 地中海에 出動하거다하는如한 提案은全然 하지안엇다

一、英獨兩國政府의 海軍協定에서『第三國의異常 또는 例外的인 事態에依하야』海軍兵備의 全般的 均衡이 顚覆된境遇에 海軍力比率의 改訂은 할수잇스나 現在 蘇聯政府의 [illegible]

伊의不參表明과 英案蘇聯反對로

몬트로會議에再暗影

【몬트로七日發同盟】海峽條約改訂會議는 七日午前再開하고 이미本會議에서 英國代表가 提出한 修正案에 關하야 討議를 續行하엿는데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委員은

蘇聯은 黑海 발칸海 沿東方面의 어느곳을 不問하고 速히 自國軍艦을 根據地에 派遣할 權利를 가젓다

고 述하고 黑海沿岸國은 他國以上의 權利를 與하지안흐면 안된다고 主張하야 英國案에 對하야 依然强硬한 反對意見을 表明하엿기때문에 會議는 再次大難關에 逢着하야 그推移는 자못 注目되고잇다

【몬트로七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聯盟의 制裁撤回決議를 採擇으로 몬트로會議에 參加할것이라는 豫想에 反하야 六日 會議不參加를 表明하엿스므로 各國代表는 新條約이 伊太利의 參加를 必要條件으로하는 關係上 자못 困惑하고 잇는形便이다 그리고 로카르노協約關係인 英佛白은 來十六日부터 브뤼셀에서 開催될 로카르노條約會議에도 伊太利는 代表를 派遣치안흘것이 아닌가고 憂慮하고잇다

北大學敎授團赴日

【北平七日發同盟】北平大學農學部敎授 劉博文氏以下十名의 敎授及助敎授는 七日夕刻 北平發 八日 塘沽로부터 長江丸으로 神戶로向할豫定인데 一行은 約一個月에 亘하야 日本內地各方面을 視察할터이라

로카르노會議 十六日부터開催

英佛白三巨頭會見決定

【브뤼셀七日發同盟】先週 쥬네브에서 방·질랑白國首相、英國外相、블룸佛首相의 三巨頭가 會見한結果 에디오피아問題도 一段落이 된것을 機로 今月中旬로 카르노協約國會議를 開催하기로決定하엿는데 드듸어 十六日부터 八日間의 會期로써 브뤼셀에서 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야 방·질랑首相은 近近關係國에 招請狀을 發할터이라고傳한다

東阿遠征의 伊軍戰病死者

總計二千五百五十三人

【羅馬七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昨年十月三日 에디오피아와戰端을 開始한以來 今年五月四日 아디스아베바陷落까지의 東阿遠征에잇서서 伊太利軍의 死傷者를 如左히 發表하엿다

死傷總數 二五五三人

內譯 戰死者 一三二四人(그中行方不明三十名) 病死者 一二二九人

日中外交調整에 高率關稅撤回要求

今月中旬頃交涉開始

【東京電話同盟】川越新駐中大使의 南京出馬로 日中國交調整交涉은 最近 機會에 活潑한展開를 期待하게되엇는데 對하야 日本政府에서는 過日來 數次에亘하야 行한 陸海外三相會議의 根本方針에따라 具體的工作을 進行하기로 되엇는데 有田外相은 中國視察旅行으로부터 歸國한桑島東亞局長의 進言을 容認하야 北中의 日中經濟提携의 實踐과 倂行하야 北中密輸의 根本的解決方法으로 南京政府에 對하야 現行高率關稅制度의 徹底的引下를 要求하고 特히 實質的으로 對日關稅라고 指目되는 人絹 砂糖 海産物에對한 從價二十割의 高率關稅撤回를 要求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一方南京政府에서는來十日부터 開催될 二中全會에서 對日外交方策의 全面的再檢討를 遂할것으로 期待되고잇스므로 川越大使는 드듸어 今月中旬頃 南京政府를 相對로 日中第一交涉을 開始할것으로 보인다

成都總領事館開館

【東京電話同盟】共產黨討伐以來 中央軍이 다스리고잇는 四川省城成都의 國際的地位는 갑작이 向上하야 四川省을 中心으로한 英佛蘇各國勢力의 擴張은 最近顯著한바잇스므로 日本政府는滿洲事變勃發以來 오래 休館한成都日本總領事館을 開館하기로決定하고 上海總領事館勤務 岩井英一氏를 總領事事務代理로 駐在케 하기로 되엇다 岩井總領事事務代理는 協議次 目下 歸國中인데 今月中旬 赴任의 途에 올라 八月初 成都에서 開館事務를 取할터이다

聯盟關係斷絕 高級委員存在無視

단치히市政府宣言

【단치히七日發同盟】단치히市政府當局은 七日에 至하야 國際聯盟과의 關係를 斷絕하고 聯盟高級委員 레스터氏의 存在를 無視한다는 旨를 正式으로 宣言하엿다

歐洲政局大波瀾豫想

【단치히八日發同盟】단치히自由市參議院議長 그라이저氏는 本月初부터 聯盟으로 歸還하야 參議院議員과 協議한結果 聯盟高級委員의 存在를 事實上 無視할 方針을 決定하고 如左히 言明하엿다

聯盟高級委員레스터ー氏는 今後 參議院에 如何한 公文을 提出하더라도 此等書類는 一切休紙로 取扱하고 同委員이 무엇을 質問하더라도 모다 沈默으로써 人事에 代할것이다

以上 그라이저議長의 言明에 徵하면 단치히自由市의 나치스派는 事實上 베르사이유條約第百二條以下를 一方的으로 廢棄하고 聯盟과의 關係를 斷絕하야 獨逸과의 合流運動에 進出하엿다고 보인다 過般來 단치히自由市와 獨逸間에 나치스黨員의 往來가 頻繁을 極하야 本國으로부터 最近 手腕잇는 黨員數十名이 自由市에 들어왓다고한다 이리하야 나치스政權이 드듸어『東漸政策』의 斷行을 企圖하면 歐洲의 國際政局은 重大波瀾은 不免할것으로 豫想된다

레스터ー氏私邸警戒

【단치히七日發同盟】단치히駐剳聯盟高級委員레스터ー氏는 七日午後 쥬네브로부터 단치히에 歸還하는即時로 自宅에 도라왓는데 警視廳當局은 나치스黨員의 激昂에 鑑하야萬一을 警戒하고 自邸內外는 森嚴한警戒를하고잇다

人事·集會

▲消防講習會 朝鮮消防協會에서는 來八月五日부터 二十四日까지 二十日間 京城署에서 常備消防組員講習會를 開催 受講者는 全朝鮮二百五十六組中에서 三十名을 選拔할터

▲堤永市氏(漢城銀行 專務取締役)人事次來社

▲金奎卿氏(家庭婦人協會 委員長)新任人事次來社

▲鄭順媛氏(同常務幹事)同上

▲朴永福氏(同庶務部長)同上

八面鋒

◇南方의棉花、北道의緬羊、產金奬勵와 特殊鑛物資源開發은 總督府의 三大產業國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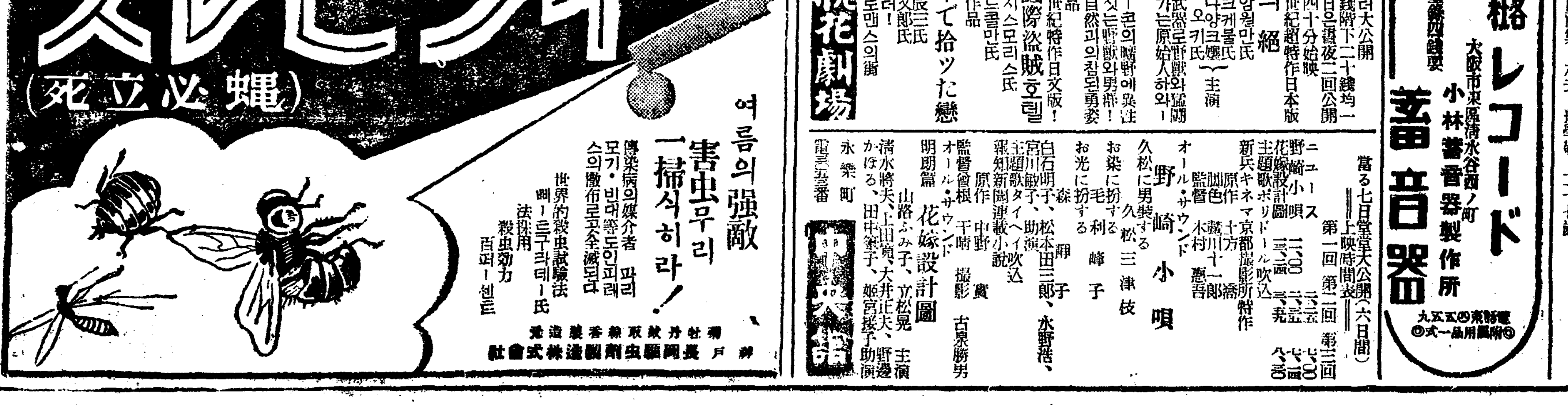
◇阿吾地의石炭液化는 燃料國策에 기름부칠지라는 石油增產의 한方法。

◇中央線 京春線等 鐵道計畫은 電話線地中埋沒과아울러 交通通信에關한 國防國策。

◇農林省에 馬政局이생기는것을 보면 濟州島의 野生群馬가歲月을맛날판이라。

◇염소도國策、망아지도國策、傳書鳩도國策、강아지도國策、甚至於도야지 치는것까지도食糧國策。

◇夜市의露店商人가티『國策이사구려』는부르지 아니할지라도『편피』以前의 生產過剩程度는 確實。



野性의 絕叫
監督…월이암웰만氏
名將…로렛다양크孃 크락크게블氏 쟉크오키드氏 主演
唯一의弓矢를武器로野獸와猛鬪하고荒野를나가는原始人하와ー드의英姿
白晳한大유ー콘의曠野에呼하고부르지즌野獸와男和!
이것은人間과自然과의참된勇姿로表現한決作品
◇유나이데트廿世紀特作日文版!
探偵劇 國際盜賊호텔
監督…죠ー지스모ー리스氏
主演…로ー빈로ー쓰만氏
◇大都映畫社特作品
現代劇 自動車で拾った戀
監督…太田辰三氏
主演…島田文郞氏
次週!十日早日!
짝즈의王ー로맨스의街
京城府桃花町 電話龍山三一三番
桃花劇場

七月七日早日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유나이데트廿世紀特作日本版
野性의絕叫
監督…월이암웰만氏
名將…로렛다양크孃 크락크게블氏 쟉크오키드氏 主演

當る七日堂堂大公開(六日間)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ニュース
野崎小唄
花嫁設計圖
主題歌ポリドール吹込
新兵キネマ京都撮影所特作
原作十方 脚色藤川十一郞 監督木村惠吾
오ー르·사운드
野崎小唄
久松に男裝する お染に扮する 久松三津枝
お光に扮する 毛利峰子
白石明子、森静子、松本田三郞、水野浩、宮川敏子、助演
主題歌タイヘイ吹込
報知新聞連載小說
原作中野實 監督曾根千晴 撮影古泉勝男
오ー르·사운드
明朗篇 花嫁設計圖
山路ふみ子、立松晃 主演
清水將夫、上田寬、大井正夫、野邊かほる、田中筆子、姬宮接子 助演
永樂町 電話本局二番

格 レコード
大阪市東區淸水谷西ノ町
小林蓄音器製作所
蓄音器

懸賞廣告
張洛基所有인海雲丸이昭和十一年五月九日午後一時에大連港에서貨物을積載하고 秦皇島方面을向하야 出發한後于今것消息이全無하야如是紙上으로四海僉位께公告하오니 機關에故障으로 停船或은如何히漂流로 海岸에 潛在하는境遇를發見하시는분은 當商店까지 通知하시면 船員及船舶을保護後任所를 通知하시는분에게 金五百圓을謝禮金으로 進呈하겟사오니 深査하시옵고 發見即時左記住所로 敎示하여주시옵기를 謹告하옵나이다
大連市北大山通四番地 張洛基商店
船名 海雲丸一八噸
本籍 咸南元山府上洞 船長 李相玉 三十二歲
本籍 咸北漁大津港 機關士 崔東出 二十一歲
本籍 全南務安郡黑山面沙里 水夫 朴宗助 二十七歲
本籍 山東榮城縣俚島 水夫 孫明浦 二十三歲
本籍 山東牟平南灣集 水夫 孫學敬 二十七歲

商標 千 都 고추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局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東 고무界元祖
大陸고무
專務取締役 金
總販賣部
總販賣部支店
京城府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山林助成第一步로 火田民을 積極保護

各道의 實情에 應하야 指導員도 增員

國庫補助로써 事業擴充

제면목의 ■■기에 산지대(山地帶)를처렴한 조선으로서는 삼림을 조선개발한다는것은 일반산업방면으로 보아도 극히필요하고 또긴급한일이어서 총독부당국에서도 그동안 여러가지로 힘써오는중 산림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문제로 항상 세상의주목을 끄는것은 산간국옥에서거의 원시적생활에갓가운 생활을 하고잇는 화전민(火田民)이 산림을 황폐하게한다하야 그정리책이 조림사업의 첫안목이되며잇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화전민정리란것을 하여왓스나 정리에힘쓴다는것이 그들을 지도보호하다는데 치중치 못하게되여 벌반 큰효과도못보앗고 다마함남한북의 북조선개척자대의 칠만칭보의 구역내에서만 그취체와 보호지도가 비교적열심히되여잇는모양이고 그여는 그리불만한 업적이 업는것을 명년도부터 대규모로 조림사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화전민정리도 적극적으로 하려는것이다 즉 현재화전민의수효는 민유림(民有林)이십이만륙천여정보내에 십일만칠천여호 국유림이십일만여정보에십삼만여호가잇는데 그들을 일정한곳에 정주(定住)식히는데는종래의 화전을 숙전(熟田)으로만들도록하야 산림의중수를 보게하며 생활을 어느정도까지 향상식혀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경사(傾斜)가 급한곳에 경작하든화전은 될수잇는대로 폐경(廢耕)케하고 농경에 가능한곳으로 모이도록 하려는것인데 그러함에는 이들을 보호지도하며 취체할 직원이 필요함으로 총독부 농림국에서는 각도에 이뜻을 명하야 직원의 증원과 그 방책의 구체안을제시도록하고잇다 그리하야 각도의 구체안에 의하야 국고로 비용을지출하야 적극적으로 화전민정리사업을진행하리라한다

腸窒扶斯는 붓적줄고 赤痢患者가 激增

大體로 昨年同期보다는 減少

大多數는 어린이들

경성부내의 전염병발생수는 작년보다 금년에들어서 현저히적은것이 사실이고 또그중에서도 장질부사 환자가 대단히적은것만은 반가운현상이엇스나 최근에와서 의외에도 적리(赤痢)환자가 급격히만히발생하야 압으로더욱 유행할 징조가보이고 잇는것은 크게념려되는일로 경성부위생과에서는 적리환자의 퇴치와그예방에 분망하고잇다 그의상황을보면 금월초하루 부터 칠일까지의 전염병환자발생수효는 총수사십구명으로 작년동기의 팔십일명에비하면 엄청나게 줄기는하엿스나 그중에서 적리환자만이 이십구명으로 전염병환자 발생총수의 약삼분의일을 점령하고잇는터이다 작년동기에는 적리환자는 불과구명이고 그대신 장질부사환자가 륙십륙명이란 놀라운수효이엇는것이 금년은장질부사환자는 불과팔명이고 그대신적리환자가 그처럼이십구명이나 발생한것이다 또주목되는것은 최근의 적리환자는 어린아이들에게 만히걸리는것인데 가정에서는 특히 이점에 주의하야 음식물중에도 날것이나또 어름가튼것을 될수잇는대로 먹지안토록하고 밤에잘때에는 차게자지안토록할바이며 만일병에걸린듯십거던 곳의사의진찰을밧도록하지안혓다가는 생명을 빼앗기기가쉽다는것이다

無後를 핑게로 乃妻를 逐出

그리고 딴女子와 結婚生活

안해는 慰藉料請求訴

자식못낫는다고 내어쫏고 돌보지안는 남편을걸러 위자료청구하는소송 ―강원도평강군평강면라매리(平康郡平康面羅梅里)김삼화(金三華)라는 녀자는 그의 남편인 가든고을현내면 하주리(縣內面下注里)김공수(金公洙)를 상대로 팔일 경성지방법원에위자료이천오백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엿는데 소장을보면 원고는 피고와 소화오년일월에 혼인을하야 자미잇게 가티사러오든중 작년십일월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김종구(金宗九)는원고가 시집간후 어린애를 낫치안함을구실로 자식못낫는 며누리는 집에그대로둘수업다하야 피고와 협력하야 강제로 원고를 친정으로 쫏친후 금년사월 김상혜(金尙惠)라는녀자와 다시 결혼하고 원고는 돌보지안하야 원고는 피고에게 다만 정조만 유린당하고 버림을바더 정신상 유체상고통이 여간만흔바가아니니 위자료이천오백원을 내라는것이다

阿片密賣團

칠일시내 종로서사법계에는 산동성(山東省)출생의 중국인손만순(孫萬順)(四○) 시내청진정(淸進町)일백사십구번지 김용찬(金用贊)(■)과 리래원정(■■院町) 사는 녀자리수옥(李水玉)(■)등 아편밀매단을 못잡아다가 방금 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시내 서소문정(西小門町)일대 중국인의집을 근거로하야 대량의 아편을 밀매하야 가지고 이를여러 곳에다 노픈갑스로 팔아먹은것인데 그들회■■인 세명의 중국인은 도망하여잇서 계속하야 체포하려 활동중이다

저번慘變에비추어 今後를嚴重警告

東署에서京城軌道會社側에

事故안내도록團束

지난■■■■ 오후세시사십오분 경성궤도회사(京城軌道會社)객차와 화물차가 시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이백십사번지압룡두교(龍頭橋)부근에서 정면충돌하야 경성사범학교상급생 삼십여명이 중상을당하고 드듸여한명의 희생자까지내인 사건은 그때상보한바와갓거니와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사건이중대하며 그책임이 전연 회사측에잇는데비추어 근근회사측에 정식경고문을 보내기로되엿는데 그내용은 이번 참변에비추어 금후수의체용을 더욱신중히할것은물론 차체(車體)며옥외관부분(機關部分)의 점검(點檢)을 엄중히 하며 보선(保線)에 특별한주의를하야 이런 비참한사고를 다시내지안토록 만전의 주의를 할라는것이다

自由移民을集團시키고 新移民은當分中止

間島省과安東省에서 一千五百町步買收

對滿朝鮮移民具體案

총독부외사과에서는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로하여금 명년에 만주에이민할계획에대하야 구체안을 작성하고잇다

그계획의 내용은 즉명년에는신천호에 일만오천명을 이민하되 대부분은 만주각지에 산재한자유이민을 수개처의 농장에 수용케하고 조선으로 부터는소수의 이민을 수송할터이라 한다 이민후보지로는 방금간도성(間島省)과 안동성(安東省)의두곳에 약일천오백정보의 토지를 매수하야 금년가을부터 공사를시작하야 명삼월조부터 수용할수잇게한다는것이다그리고 명년부터는 조선각지의토목공사가 격증하야 따라서로동자의 수요(需要)도 격증함으로 당분간은농업이구의 조절을하는정도로 조선에서 만주에이민을 수송하고 될수잇는대로만히 자유이민을알선할방침이라고한다

男人禁制의女僧房에 유난한誘惑의魔手

어린女僧을꾀엿다고暴行하고

필경、警察署에까지

남인금제(男人禁制)의 녀인승방(女人僧房)에서 일어난사건 ― 팔일아침 동대문서에는 남장(男裝)한 십오륙세되여보이는 아리따운녀승과 사십세가량되는 녀승이 불리어왓다 그들은 신설정(新設町)에잇는 탑골승방(塔洞僧房)의녀승인 방재현(方在賢)(■)과 정봉완(丁奉院)(■)으로 정은 이어린녀승을 여서살때부터 길러내서 오늘에이르럿는데 금년에들어 버들나무입히푸르기시작하는때부터 송방부근의아이들은 이녀승을꾀여내기시작하야 녀볼에도여서살부터길러온김재성(金在成)(■)이라는녀승을 당한이승방에서는특별한 경계를 하여오든중 지난월하순 어느날에는 어떤자가 이녀승을꾀여내여 밤이깁도록 도라오지안홈으로승방의일대이변이라 적잔케 근심에싸혀잇든중 그날밤 열시경에 그승방부근에사는 배천석(裵千石)(■)(假名)이란자가 나타나 등관계업는 자긔에게 의심을하는것은 어쩌일이나고 하거에 그정봉완은 분김에 목침을던진것이 그의머리에마저 부상을당하엿든것이라고한다 이리하야그들은유 두녀승은 상해고소에대한 관계자로 십분을바드려온것이라고한다

處女를誘引 强制로賣春

칠일 오후세시경에 연백(延白)출생의 러덕순(李德順)(■)은 시내 황금정(黃金町)사정목 일백사십번지 박금희(朴今姬)(■)가 시내모려관에서 식골처녀를 유인해다가 강제적으로 정조를 팔게하고잇는것을 종로서형사가 탐지하고 현장을습격 체포하여와서 방금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은 지난달 하순경에개성(開城)으로부터 안잡이나살양으로 서울로와서 시내 황금정삼정목 부근을 배회하고 잇던 김연귀(金然貴)(■)라는 처녀를 부자집에 식집가게 중신해준다고 꾀여가지고 전긔와가티 강제로 여러사람에게 정조를팔게한것이라는데 취조에따라 그들의 독아에걸린 처녀들이 만히 나타날것갓다고한다

運動競技

職業野球決勝에 名古屋軍이優勝

【東京電話】日本職業野球聯盟優勝戰인 名古屋金鯱軍對東京세네타-스對戰은 七日午後二時부터 戶塚球場에서 名古屋先攻으로開始한바 始終白熱된 投手戰을 繼續하드니 名古屋軍의 本壘打로 貴重한一點을獲得하야 名古屋軍이優勝하엿다

세네타 0000000000
名古屋 0001000000 1―0

宣傳포스타로 체코國憤激

【뿌라-그四日發同盟】「뿌라-그」에서의 四日附各紙는 獨逸政府의宣傳用 포스타-中의 獨逸地圖中「체코」領土中北部及西部「뽀헤미아」地方을 獨逸領土의 彩色과 똑갓게하엿다고 大憤慨하는同時에 痛烈한抗議文을 一齊히揭載하엿다 그러다고 이問題를가지고 「체코」體育會는不參加聲明書를發表하야 紛糾가생기게하는일은取치안코 大會에參加할것을 聲明하는一方 平穩裡에 事態를收拾할것을 希望하고잇다

夏季、冬季를區別 一種의妥協案

【伯林七日發同盟】올림픽大會規定에依하면 夏季大會開催國이 冬期大會開催에 關하야優先權이잇스나 擧行不可能한때와 其他理由로 擧行치안는다면 他國에서 擧行할수잇스나 最初부터夏季、冬季로區別하야 開催地를 決定치는안흘것이다 그러나 現下의 複雜한情勢로보아 或은次回大會에限하야 最初부터 夏季、冬季兩大會를 區分하야 開催地를 決定하는妥協案을 提出될것으로豫想된다

米國代表軍에게도 올림픽派遣資金難

【뉴욕五日發同盟】米國女子陸上代表 銓衡委員會는 五日뉴욕에서行한바 「코ー취」에 「센트루이스 AC」의데이ー뷰스맨氏가 就任

富寧水電認可

동양척식회사(東拓)를 주체로하야 조직중인 부령수력전긔회사(富寧水電)발긔인으로부터 얼마전에 체신국에 부령수력전기개발의허가를 신청중 이엇든바 칠일에 허가가 나왓다

부령수력전긔는 두만강(豆滿江)물과 경성천(鏡城川)의 물을 수성천(輸城川)의 수원인 부령천에 끄으러서 발전하기로된것인데 발전력은 약이만칠천『키로와트』이며 제일긔발전계획중에 부령수력전긔주식회사는 자본금 일천이백만원인데 동제계획(統制計劃)과 마찬가지로 제일내지제칠천『키로와트』를 발전하야 그 발생전력의 전부를 장진강(長津江)수력전긔회사에 공급하기로되엿는데 느저도소화십삼년말까지에는 발전을개시할예정이라한다

生活苦自殺兩件

方法은모다縊首

빗쟁이게졸리다가

시내성북정(城北町)백팔번지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 송완호(宋完鎬)(■)는 부채삼백원을 갑흘길이 업서 빗쟁이한테 달연을 밧다못해 칠일밤에는 술을만히 마시고 팔일오전력시경에 부억대들보에다 목을매고 죽어잇는것을 아침에야 집안사람이 발견하엿다

貰房살이스러워서

여드렛날 오전여섯시 시내금정(錦町)이백오번지 김성녀(金姓女)의집에 곗드려사는 윤긔산(尹奇山)(■)이라는 사나이가그 집헛간에서 목을매여 자살햇는데 원인은 생활곤난을 비관햇기때문이라한다

崔興兆와金秋善 七日、檢事局送致

여섯번出沒에 반듯이殺傷한

近來稀見의海州强盜

【海州】루보한 얼마전에 해주서부일대를 중심무대로하고 수일동안을 매일가티 계속적으로경찰의 철옹성과가튼 비상경계망을돌파하며 행인과 농가(農家)를 습격하야 주인을칼(刀)로찔러 중상을입히고 대금을강탈하는등 전후여섯번의 상인강도를 범행하야 일천여원의 대금을 강탈하여가지고 신출귀몰하게 연과와가티사라저서 항간에 커다란 충동을이르키엇든 해주상인강도사건의 범인으로 강절도사그등 전과삼범인

本籍 慶北慶州郡內東面千單里
住所 海州郡海州邑北幸町一五
一 木工 崔興兆(■) (別名 崔龍洙、崔龍洙)

本籍 海州郡代車面葛峴里八三
住所 同郡海州邑上町一四六
木工 金秋善(■) (一名 金秀春)

두명중 최(崔)는 루월 이십일 김(金)은 그달 이십륙일에 해주서(海州署)에서 각각 체포하야 본서에 인치하고 엄(嚴)사법주임이 직접주필한 취조를진행중이엇는데 취조에 따라 사건의 얼단락을지엇슴으로 동서에서는 지난칠일에건서류와함께 가택침입죄(家宅侵入罪)를 비롯하야 강절도급강도미수죄(强竊盜及强盜未遂罪)등 네가지죄명으로 붓치어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竹添町불탄자리

八日午前一時半頃 竹添町에大火!

二棟三戶全燒코鎭火

팔일 오전한시반쯤에 시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사십사번지 바로 동양극장(東洋劇場)압 큰길가에 잇는 천막(天幕)장사천상회(泉商會) 송의석(宋義錫)(■)의집에서 불이나서 그집과이웃까지 두채에 세가호를 전부 태워버리고소방대사십여명의출동으로약반시간만에겨우불을잡앗다

이방중에 일어난 화재이엇스므로 잠을자다가 별안간에 놀래여 피난하게되는 바람에 그이웃 사십삼번지에 사는 안경식(安京植)(■)과 그의 안해 김씨(金氏)(■)와 그의 둘재아들 공상(孔三)(■)과 장녀 정순(貞順)(■)과 또 그이웃 한종의(韓宗義)(■)등 여섯명은 모다 약간의 화상을 입엇다

손해는 합계약륙천원가량되다하며 불난원인에 대하야는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에서 불낸집인 송의석의 집에서 자고잇섯든 김형수(金亨洙)(■)등 세명을 조사해본결과 그집에서는 불나기는 전연 업섯스며 담배도 피운일이 전연 업는데 루전(漏電)이 아닌가도 의심된다한다 그러고또 한가지 의심되는것은 당연히그날밤에 그상점에서 자고잇서야될 사람한명이 다른데 가서자고잇섯다는것이라한다

전상회에서는 상품만으로 삼천원보험에 드러잇스며 그집주인은 미근동(渼芹洞)사는 등정(藤井)이라는 사람으로 오천원화재보험에 드러잇다하다

〈新築落成 無料診察 夜間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獨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五二

四千罐의石油、揮發油 下陸時失火騷動

人夫一名負傷、船舶一隻燒失

七日、群山西海岸에게

【群山支局特電】지난칠일 오후여섯시사십분경부터 군산서해안에서 군산본정등 좌등상점(佐藤商店)과 전주통의 소화상회(昭和商會)의소유인 석유와휘발유등 칠천관가운데에서 약사천관을 상륙중에 인부의 부주의로말미암아 실화, 불은 큰폭음으로터부러 연소되기시작하야 인부한사람은 부상하엿고 배두척은전소한후 팔일오전 다섯시 반경에 간신히 불을 잡엇다한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실화의 용의자를 유치하고 취조를 거듭하는동시에 그주범자로 지목되는 정복태(鄭福泰)의 간곳을 찻는중인데 아직도 붓들지는못햇다한다 그리고이번화재에 석유와 휘발유의 피해액은약오만원가량되리라한다

本社講堂消息

桜恩町 金玉旅館 吳廷均君과 秋福女孃의 結婚式을 九日正午부터 本社講堂에서 擧行

天氣予報

豫報 今夜京城地方은개엿다 흐렷다하며 明日도갓다 全區도同一 京畿

昨日最高 三〇·〇度
同最低 二一·〇度
今朝最低 二二·三度
今日正午 二七·六度

本 樋 (家紋)

小兒의 良藥 樋屋奇應丸

愛兒들때문에 母性愛의苦心에酬應된 天惠스런이育兒名藥

救急에 경풍·선열·기절·其他밤中에急病으로容態의急變에
治病에 단독·회충·신열이날제·胃腸障害·젓구역·靑便·消化不良·食傷·홍역·우두에
保健에 밤에울고·下毒·顏色이푸르고·여위는애·其他나면서부터弱한아히들께

無代進呈 育兒之友 新聞名記入申込

本家 大阪天滿橋 樋屋合資會社

11―K―4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天賞堂 大景品 るた堂

景品內容
四圓以上の品一個每に朝鮮日報發行雜誌朝光一冊進呈
六圓以上の品は山梨縣特産物純粹の高級水晶ワイシャツボタン一組を進呈致ます
九圓以上品は朝鮮日報一ケ月購讀券一枚を進呈致ます

クロム側16型懷中 瑞西製

イ	7石市價7圓ノ品特價	2.50
ロ	7石〃9圓ノ品	3.75
ハ	7石〃15圓ノ品	5.50
ニ	7石〃18圓ノ品	7.90
ホ	10石〃9圓ノ品	5.00
ヘ	10石〃13圓ノ品	6.05
ト	10石〃17圓ノ品	7.95
チ	10石〃20圓ノ品	9.50
リ	15石〃19圓ノ品	7.80
ヌ	15石〃23圓ノ品	8.90
ル	15石〃27圓ノ品	9.55
ヲ	15石〃30圓ノ品	13.50

クロム側16型懷中ウオルサム

ワ	7石市價25圓品特價	7.55
カ	7石〃29圓ノ品	9.00
ヨ	7石〃35圓ノ品	11.50
タ	7石〃38圓ノ品	17.95
レ	15石〃40圓ノ品	15.90
ソ	15石〃45圓ノ品	20.80
ツ	15石〃55圓ノ品	23.50
ネ	15石〃79圓ノ品	32.75
ナ	17石〃9■圓ノ品	33.00

朝鮮日報購讀券 高級純良水晶 와이샤쓰 ボタン 雜誌朝光

クローム側腕卷 瑞西製

型			
11型	イ	7石市價7圓品特價	2.70
	ロ	7石〃9圓ノ品	3.95
	ハ	7石〃13圓ノ品	4.90
	ニ	7石〃19圓ノ品	8.50
10型	イ	7石〃8圓ノ品	4.20
	ロ	7石〃9圓ノ品	5.90
	ハ	10石〃12圓ノ品	6.50
	ニ	15石〃19圓ノ品	8.75
9型	イ	7石〃9圓ノ品	5.80
	ロ	7石〃14圓ノ品	6.70
	ハ	10石〃17圓ノ品	7.90
	ニ	10石〃19圓ノ品	9.80
	ホ	15石〃18圓ノ品	6.90
	ヘ	15石〃19圓ノ品	8.35
	ト	15石〃23圓ノ品	9.50
	チ	15石〃27圓ノ品	13.45
8型	イ	7石〃10圓ノ品	6.55
	ロ	7石〃12圓ノ品	7.90
	ハ	10石〃15圓ノ品	8.75
	ニ	10石〃17圓ノ品	9.30
	ホ	15石〃13圓ノ品	7.50
	ヘ	15石〃16圓ノ品	9.10

前金註文は送料不要・代引は三割以上內金を必ず先送し
景品の關係上送料四十錢負擔の事 內金無代引ハ
가다로구를 청구하시오
天賞堂 東京淺草松葉町二十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藥書로申請하면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히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胃腸病仙藥 神秘丹
大阪漢方藥局 本舖 景春堂

テント 丸善テント商会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一
(カタログ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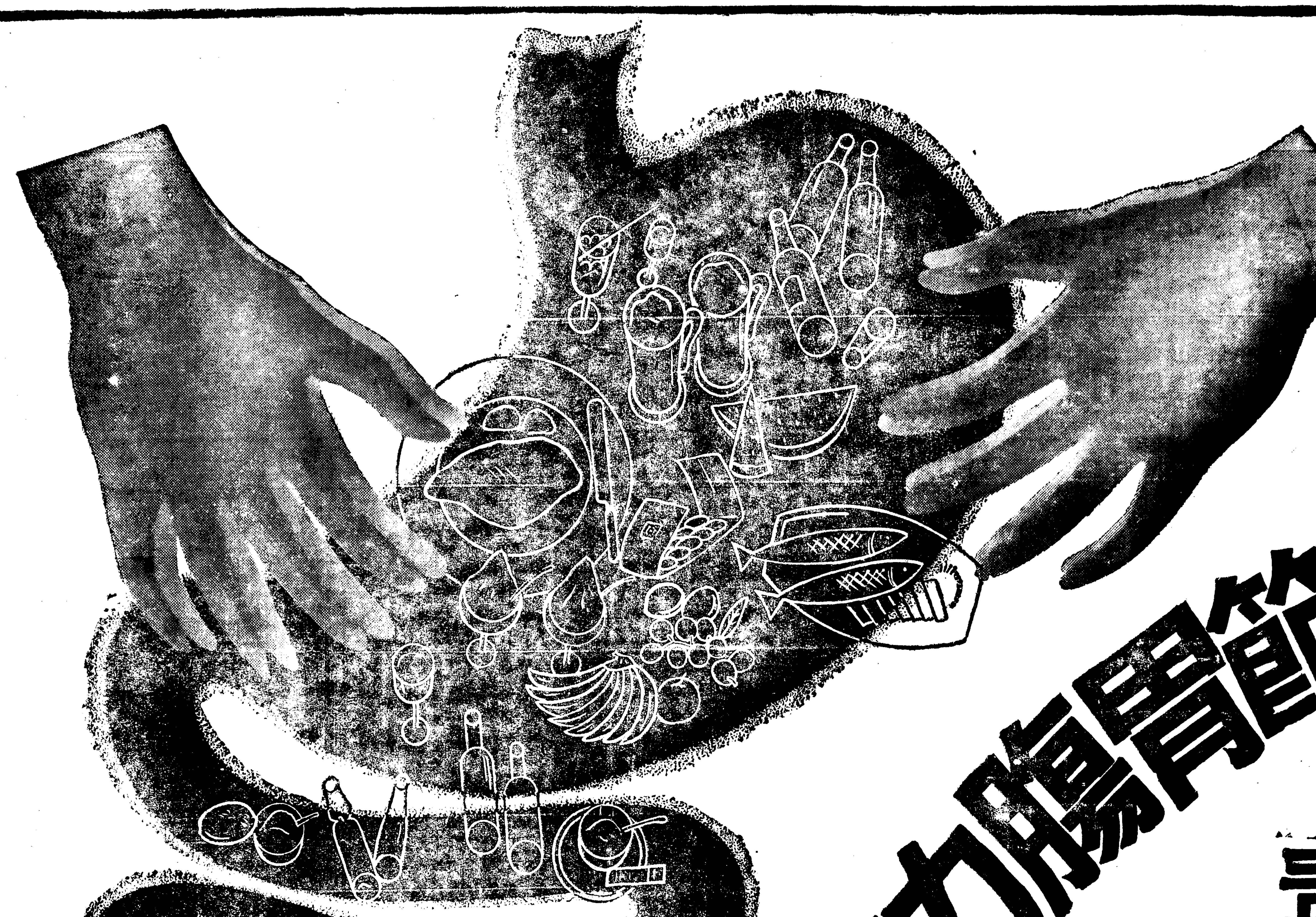
모루히네
모루히네中毒者에 福音
一朝에秘藥을그곳처서 모루히네의中毒을 全治에 苦痛을 除去하고 健康을 回復함으로써 安心하고 應用하기를 明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皮下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大阪市東區道修町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모나-루 福 MONAL FUKU

朝鮮料理 天壽閣
風景과藥水의 安靜寺後麓
京城下往十里町
電本②四四九二番

キエカトール I-KATOL

浪花館
七月八日より七月十四日まで

優美館
聖林스타合戰
拳銃やくざ
阿修羅八萬騎
貫鐵町 電光三九五



夏節胃腸カタル다! アイフ다!

(아이후)

해되는것일수록먹고싶다

毒な物ほど欲し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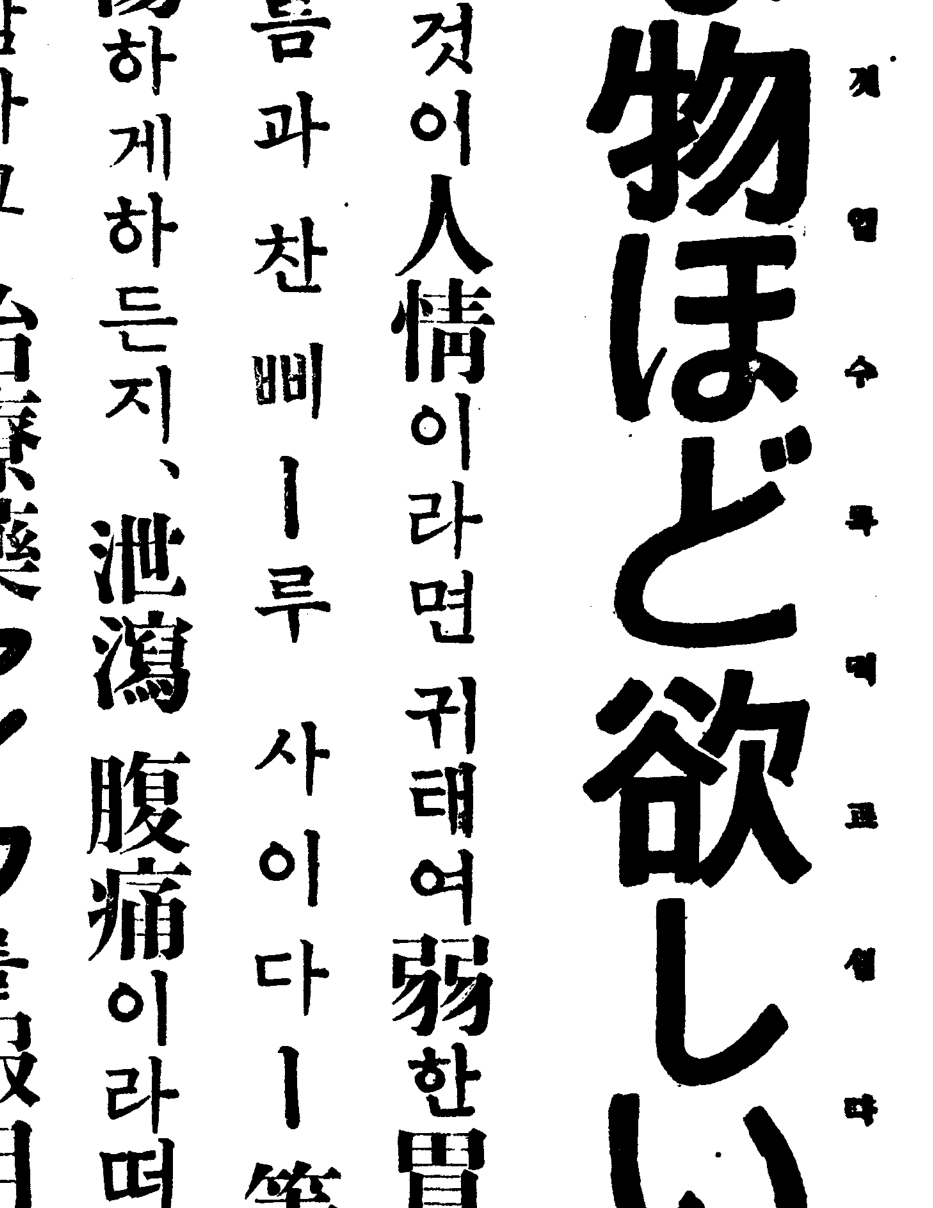
이런것이人情이라면 귀태여弱한胃腸을
어름과 찬 삐ー루 사이다ー等으로
傷하게하든지、泄瀉 腹痛이라떠들지말고
잠자코 治療藥アイフ를服用하시라!

참으로 요지음과가티 더운때에는 누구든지 冷水 아이스크림 삐ー루 사이다ー等等. 무엇이든지 찬것이당기는것이지만 過度히 冷한것도 胃의關門인 噴門과 出口인幽門의筋肉을刺戟식혀 閉鎖식힘으로써 먹은것이胃中에積滯되기쉽습니다 그뿐아니라 胃粘膜에凍傷을이르키든지 腸의蠕動을亢進식힘으로써 胃加答兒와泄瀉의症狀을이르키는것은 當然한일이며 더웁다해서胃腸의能力도考慮치안코 되는대로過冷한飮食物을攝取하는것은 自身이病苦를 招迎하는것이라고 안할수업는것입니다

大體 여름은胃腸의緊張이弛緩되야 消化吸收機能이極度로衰退하여짐으로써 健康한사람이라도 無理를하면胃腸障害를이르키기쉬운일입니다 더욱히 平素부터너머나胃腸이튼튼치못한분이나 慢性大腸加答兒가잇는분等 食慾不振으로榮養이衰退하야 여름을타게되며 寸時라도不注意를하든지 攝生을게을니게하든지하면 急性의胃腸加答兒를 이르켜 一層더痼疾를 惡化식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름과가튼胃腸非常時에는 항상治療藥アイフ를服用하야 慢性的인胃腸病의 治療에努力함과同時에 暴 暴食 不消化物 腐敗된食物 過冷한飮食物 寢冷等、急性胃腸加答兒의 原因이되는不攝生을 謹愼하지안어서는안됩니다。

또한 假令 急性胃腸加答兒에걸니드라도 젓바삐하지말고治癒할수잇는 アイフ를常備하야 赤痢、腸疾扶斯等의惡疫을 未然에防止하는것이 여름人衛生의常識이되지안어서는안된다 더욱히 治療藥アイフ에는 病原、對症二重의作用이잇스며 主藥이胃腸內壁의瘡面에沈着하야 炎症을醫癒하며 粘膜을튼튼케하며 弛緩을引縮식히며 分泌及蠕動異常을 整齊하는等 敏活한 病原治療를 營爲하며併하야 胃病、腹痛、泄瀉、嘔吐、食慾不振等 諸症狀을消退식혀 全機能의健全한活動을助成식힘으로써 慢性症은勿論이고 여름急性胃腸病에도 賞用되고잇습니다



藥價

胃さ腸の兩病にはアイフ(末粉)

四日分 七十五錢	十七日分 三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十一日分 五圓

胃病專門には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一百六十錠入 一圓

▶全國到處有名藥에잇슴◀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五番 電話七六〇八番

옥잠화 비에젖은 옥잠화는 도회지 먼지에 파무처 사는사람에게 멀리 고향의 한적한 뜰을 그립게한다。

家庭

양식에『쏘ー스』는 칠데처야제격이다

『푸딩』에도『쏘ー스』를치십니까 양식애호가께한말슴

요지음으로 양식이 버쩍 유행하야 웬만한 분이면 한달에 한두번, 아니 멧칠에 한번씩은 양식을 자시게 됩니다。 거긔 딸아서 이제부터는 제법 양식을 내논는 절차라든지 양식을 먹는 법식이라든지도 거의 일상상식이되아 버리엇습니다。 그러나 아즉도 양식을 양식다운 맛으로 먹을 줄을 아는것 갓지는 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네는 아모데고 소스를 자꾸 처 먹는 것만보더라도 잘알 수가잇습니다。 어떤 서양人사람이 일본서는 양식을 먹는 것이아니라 소스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엿습니다。 그런말로보아서 일본내지도 그런 모양이지만은 조선은 더한층 심하다고보입니다。

물론 조선음식에 간장이나초장이 부터 다니듯이 양식에는 소스가 딸아 다닙니다 만조선음식에도 간장 칠것 따로잇고 초장 칠것 따로잇듯이 양식에는 소스를 칠것이 따로 잇습니다。 그저 떠퍼노코 소스를 처서 심지어카레라이스나 해쉬라이스에 다가까지 치는 분도 잇스니 그것은 마치 편육을 간장에 찍어 먹고 떡을 초장에 찍어 먹는 격이 되고 맙니다。

본래 카레라이스나 해쉬라이스는 본래 본격적양식이아니니까 그런 촌티를 하야도 그래도 괜찬습니다만은 콜트·함이라든지 보힐드의 요리라든지에다가 소스를 처서는 참말 망처합니다。 그도 그러치만은 청신한 맛으로 먹는 살라다에다가 시큼찝질한 소스를 처서 자시는 것이야말로 억하심정인지 모르겟습니다。

서양人사람들은 소스를 그리케 만히 여긔 저긔 처먹지도 안커니와 칠만한데 칠때도 아조 조금 맛맛으로바게 터 치지를 안습니다。 그리고는 대체로 빠다라든지마요네스라든지 케찹이라든지그런 것을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요리에소스를 치느냐고요? 푸라이나가쓰레쓰든속이라고 보아서 졷습니다。 푸라이에도 레몬쯤가을 겻드려 놋는때가 잇지만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푸라이라도 소스를 치지 안는 것이 상식으로 되야 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푸라이고 가쓰레쓰고간에 소스를 듬뿍 처버리어서는 고긔맛이 다 어대로 가고 소스맛밧게 남지 안습니다。 그러키때문으로 비푸스텍가티 순연히 고긔맛을 본위로 삼는 요리에도 소스를 치는것은 질색입니다。

×

호배차를 생으로 먹는데도 차라리 조선식 초장이 나흘찌언정 소스가 재미업습니다。 오이나 홍당무나 생으로 먹을때는 다 마찬가집니다。 그

헌데 봄 양식점에서 쓰는 소스는 대게 병에 너허서파는 것이라 그것이그러케 조흔 소스가 되지 못 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수고도 듬고 비용도 며 들것지만본맛 만들 쉬하야 쓰자면 죽접맨들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러고 파는 소스중에 그래도 어떤 소스가 조타든지 나부다든지 는전문가가아니고 업는보아서 알 수가 업습니다。 그저 갑이 비싼것이 조흔 것이라고 하는수밧게 업습니다。

이세국민을잠식하는소아결핵 예방과대책은무엇 ⑦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그러므로 일변에한번식 아이의『트벨쿠린』반응을 보는것이 대단히 필요하며 필자는 일변에 한번식 아이에게『트벨쿠린』반응을 봅니다 유아에는 일반히『트벨쿠린』반응양성률이 극소하므로 만일반응이 양성이면 감염된뒤 얼마되지 안흠으로 일이년간은 특히 주의해서 발병되지 안케 각별히 주의해야됩니다 또그러고 보통학교에서는 해마다『트벨쿠린』반응을보아 양성아동에는 활동(活動)성결핵의 유무를검사해서 활동성결핵이 증명된때는 물론 휴학을식히고 정양치료케하며 만일감염되여서도 활동성결핵이 아니면 주의인물로써 발병을 예방하는것이 대단히필요할줄생각하며 이런시설이 실시되기를 필자는 바라는바입니다

발병을 예방함에는 과로하지 안케 주의하면서 적당한운동을하며 영양에 주의해서 체중을 증진케하는동시에 겨울에는 감기들지안케 여름에는 특히 의복을 엷게입히어 신체를 튼튼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광을 잘 쏘이게하며 방안은 두말할것업시 늘 청결하게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잘 소통케하는것이 조흡니다。

결핵을 인공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즉 인공적으로 신체에 면역이 생기게 하는 방법은 유감이나 오늘까지 아직 완성되지못햇습니다 『칼멧트』씨의 무독성결핵균을 소아에주어 면역케하는법 소위 『삐씨지왁진』이란것이 고안되여서 불국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혹 사용하지만 전혀 안전하다고 할수업습니다 어떠튼 사라잇는균이므로 우리 신체에 드러가서 다시 독이 생기지안는다고 확언할수업습니다 물론 동물시험에는 다시 독이 생기지안는다고합니다 그러나 이왁진을매긴 소아에장결핵이생긴아이도혹이스며 또만흔 유아가 이때문에 결핵이생겨 죽은 불상사도 잇습니다 이외에도 혹잇지만효과잇는것이 아직업습니다 오늘날까지 다수한의학자들이 머리를썩이며 막대한 물질과시간을 허비해서도 인공적예방법이 업는고로 이것은 소극적이나마우 예방한 두예방에대하야 주의하서야됩니다

결핵의치료

일반료법으로는 신선한공기일광 영양등의 이세요소을 잘리용하는것이 제일필요합니다 결핵은 악성도잇지만 그러나 양성의것이잇서 잘낫는때가 만습니다 단지만성이되여오래 정양치료를요하므로 이점이 대단히끈란합니다 이병에대한신효한약은 아직업스므로 약으로써 근본적치료는 불가릉하며 대상적료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요즘약팔기를 위주로 신문지나혹잡지에 대서특서로 광고 한것에 혹 민간료법에 유혹되는사람이 만흔데 이것은 크게잘못이며 제일신임하는 의사에게 지시를바더야됩니다。

내종으로 한말슴드릴것은 요네도말하엿거니와 이병에는 특별한약이 업습니다 그러므로파약하면 병이 완치되리라고 과신햇다가는 도리혀 더해지는때가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본병이 잇는사람은 신경이 예민하므로 이병에 조타는약을 만히먹어도 여기한것가티 낫지안흐면 점점 불안해저서 결국 증세는 더해지며 실망하게됩니다 그러면 약은 어떤작용을 하느냐하면 본병을 낫게하는데잇서 직접작용하는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자연히 낫는데 보렴해주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약으로써 완치는 절대불가능하므로 우에말슴한 감염예방과 발병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며 치료에잇서서는 상요소와 과로등에 주의를하면서 복약하여야됩니다 어떠한소아결핵은 거의전부가 폐문림파선결핵입니다 이병은 잘낫는고로 그리 념려할것업습니다 그러타고 치료를 등한히해서는 안됩니다 아모조록 속히 의사의 지시를바더 다른곳 혹 전신에 결핵이 만연되지안케하는것이 대단히 긴요합니다(끗)

폐人병일까

問 평상시에는 건강하든몸인데 한사오일전에 수면부족으로신체의권태를 늣기고 식욕이 부진하더니 삼일전에는 돌연히 혈담을 배텃는데 폐병의의심이잇습니까 곳하교하야 주시옵소서 (平壤讀者)

答 월래 튼튼하든 사람의결핵시초증세가 각혈로부터 시작하는 례가만습니다 당신증세로서 생각하더래도 실중팔구는폐병의 시초이겟지요 고식적으로가정에서만 치료하고저 생각치 마시고 초긔인것만큼 철저적으로 치료를 밧게하심이후효가업슬것갓습니다 각혈한것으로만은 놀래지말고 치료하면 완치될것입니다 (翠岳病院長 朴秉來)

관절에서나는소리

問 저는 금년삼십세된 남자인데 몸은 비교적 튼튼한데 오년전부터 좌측관절에서 보행하면 똑똑소리가 나드니 작추부터는 량쪽이 다 먼저와가튼 소리가 나오던중 금년에는 허리에서도 각금 똑똑소리가 나오니 무슨 원인이며 병명과 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요 (全北 參禮 一讀者)

答 관절의 뼈와뼈가 서로 부드치는소리이오 아모병도 아니오니 안심하십시오 따라서 아모치료도 필요치 안습니다 만약에 관절이 부어온다든지 몹시 아프거든 진찰하야볼필요가 잇습니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우리애기는 꾀가 말짱해요。몸에 탈이낫슬때 약을 먹이랴면 세상업시 꾀여도 안먹습니다。억지로 입에 트러너흐면 모두 바러버립니다。아가야 얌얌!… 저거 보세요 벌서 도라서지 안나。

(글쓴사람 유점효)

動物漫談 ⑤

십년전 동무이든 호랑이와 개 (二)

崔秉和

개와 호랑이는 한울안에서몃칠동안을 지낫습니다。 호랑이는 잠잣코 개를건너다보고잇고 개도잠잣코 호랑이겨테 얌전하게 안저잇섯습니다。

옛동무들은 지절지절 떠들고 이야기하는것보다는 도리혀 잠잣코옛일을 떠들어 생각하면서 바라다보고잇는편이 나흔것가티 보여섯습니다。

밥먹을때, 개는 겁도업시 으범이 호랑이 먹을밥을 먹으랴고 할때 잇섯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서 개의머리를가만히 내리눌릅니다。 그러케해도 듯지안는때에는 아조적은소래로 어훙! 하고지짐니다。 그리고 조곰 힘잇게 개를 때밈니다。 그러면 개는 빗슬빗슬뒤로 너머질듯하다가는 필석주저안젓습니다。

면번이나 이러케하드니 개는제목앗치아닌 호랑이먹을음식에는 대들지안헛습니다。

어느날, 호랑이가 낫잠을자다가 깨여보니깐 그검정개는 보이지안코 윈 처음보는 누렁개가 잇섯습니다。

그검정개는 오래이곳에잇슬형편이못되므로 데려내가고 그대신 다른개를 데려온것이엿습니다。 옛날 개동무를 맛난것을 몹시 깃버하는 호랑이가 갑작히 개동무가업서지면 퍽 쓸쓸하게생각하겟습으로 이것을 염려한 동물원안의 계원(係員)이 이러케 해노흔것이엿습니다。

호랑이눈이 번쩍떠지자 개는 질겁을하면서 지젓습니다。 호랑이는 좀 뜻밧기라는듯이 기지게를키면서 이러나드니 개잇는쪽으로 갓가히왓습니다。 무서움과 놀라움에 엇지할바를 모르는 개는 뒤로 슬금슬금 꽁문이를 빼면서 큰소리로 지젓습니다。

호랑이가 갓가히오면 갓가히 올사록 개는 작고만 뒤로물너가서 울한구석에 꼭갓치게되게는 이제는 엇더케할줄을 모르고 몸을 조고마케 옴으라트리고 잇섯습니다。 그머리우에 얼굴을더흔 호랑이는 또 길고십 빨건혀를 내밀드니 개몸둥이를 할기시작하엿습니다。

『잡아먹는줄 아랏드니 할고잇구나。』

『자바먹키커녕 반갑게 인사를하고잇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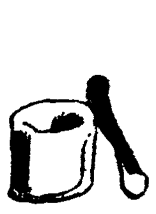
『참말 순한호랑이다。 이러케순한호랑이는 이세상에 도업슬걸?』

『업지안코』

이러한이야이들을 하면서 여러사람들이 드려다보고 잇섯습니다。

사흘이지나자 개는 아조 호랑이와 친해저서 멍!멍!짓고서는 호랑이겨를 뛰면서 빙빙도라다니기도 하고 또 누어잇는 잔등이우에 뛰여오르기도하고 어느때는 호랑이발을 살멋이물면서재롱을부리고잇섯습니다。 호랑이는 개가하는대로 내버려두고 개가귀여운듯이 잇다금혀로 할터주엇습니다。

이소문이 여기저기 쭉ㅡ퍼지자 구경군이 전날 몃갑절더들어와서 이호랑이울압에는 하로에종일 구경군이 겹겹히 둘려찻섯습니다。 (第五話終)



小說 보리방아 【五】

蔡萬植 作 崔賢郁 畵

용히는 어린 처녀다운 부끄러움에 어머니가

『……시집을 가거든……』

이라고 하는말에 볼을 붉히고 고개를 돌리기는 하엿스나 그러면서도 귀가 솔깃하기도햇다

시집을 가면…… 그러치 부자집으로 시집을가면……

그러나 용히의 상상의 시야는거기서 더넘어가지를 못햇다

시집은 대체 어떠케해서 가는것이며 그리고 어떠케 누가 재롱를이며 또 그보다 조흔것들을 사주게 되는지 용히는 그래서 그것을 알수도 업스러니와 미들수도업섯다

그보다는 도야지가 행결미더웟다

시월에가면 배맥이로 어더온저도야지가 새끼를 날레니까 열마리만 날셋치고 그중한마리는 절구를 겨서 돌려주고 남어지가 아홉마리 아홉마리에서 두마리쯤 축질요량을 해도 일곱마리 일곱마리를 한마리에 사원씩만 바더도 이십팔원 이십팔원이면 십사원짜리 송아지가두마리 그놈을 일년반만 멕이면 큰소가 두마리…… 큰소한마리에 얼마씩이나하나?

『어머니 큰소한마리 얼마씩이나 헌대어?』

용히는 무심결에 이러케물엇다

어머니는 이애가 갑작히 이건 무슨소리를하느냐?는듯이 용히를 바라보다가

『왜 재봉틀은 그만두구 인자는 소를살내?』

하고 웃으면서 뭇는다 용히도 따려 웃는다

『응 아니 팔게……』

『팔어? 소가 어듸잇서서?』

『인제……』

『인제? 인제 누가너를 소를 한바리 갓다준다데야?』

『아-니 저 도야지 키어서…』

『원! 지집애두!……나넌 무슨소리라구! ……그리라 어키어서 송아치를 사노아란』

어머니는 될수업는 말이라고 할라다가 딸이 랍심이 될가버서 그럿케 대답해준것이다

『큰소한바리면 오백냥(백원)은바들테닝게 잘허면 재봉틀하나 헌돔으루 사것다』

용히는 방그레-니 웃엇다 그러면 한마리는 집에두어두어부리게하고 한마리만 팔어도 넉넉한것이다

마침 도야지가 입맛 사나운호바니풀 먹다가 물리고 빽-빽 소리를친다

용히는 물이낫케 내려가서 도야지들을 드려다보다 아죽주동도 못된 새끼다 잘 어더먹지못해서 뒷다리가 배배 꼬이고 눈깔이 다닥다닥 부럿다

용히가 와서 섯는것을보고 주둥이를 벌신거리면서 런신 팔팔거린다 무엇 먹을걸 줄 달라는말이다

『어서 호박니피나 먹어라 저께』

(겨)년 잇다가 방애찌어서주께』

용히는 사람한테 말을하듯이 타일으나 도야지새끼는 알어듯을태이업다

용히는 도야지를 굽어다보고 잇느라니까 어느새 그놈이 큰소가 되어서 무ㅡ하고 소리를 질르는데 그넘어로 다르르 바눌이 올으내리는 재봉틀이 보이는것가터다

도야지는 밥을 주지아니하니까 끌끌 소리는 그만두고 다시 빽ㅡ빽 우는소리를 질은다

『게 잇거라 내 그럼 방애 곳찌어서 네 밥주께』

용히는 이러케 도야지를 달래드끼 말을하고 돌아서서 마루로왓다

어머니는 아까 해온 열무를 다듬고잇다

『어머니 방애 안찌어?』

『찌키는 찌어야것다 보리쌀이 저녁거리배끼(박게)읍지야?』

『응』

『그럼 찌어야것다만 좀 잇다가 찌어야지 시방어듸 더워서 찌것냐?』

『시방 찌어야 엽처서 널엇다가 대끼기가 조치』

그것도 그거려니와 용히는 기왕 방아를 질바이면 바빼찌어서 도야지를 겨를 주자는것이다 자꾸자꾸 멕이기만하면 멕이는 족족 도야지가 물신놀신자랄것만 가테다

『그럼 내가 채리노쿠 먼저엽치기 시작허께 어머니』

『그리라만 더웁다』

『괜찬허……』

용히가 그래서 서편으로 잇는 헛간압 그늘에 멍석을펴고 절구통을 굴려다노코는 가마니에서 보리를 퍼다붓는데 사리문아프로 웬 낫선 여인네가들이나 끼웃이 굴어다보더니

『이집인가 원……』

하고 마당으로 들어선다

『이집이 윤씨댁이요?』

아페선 한 오십이나 먹어보이는 뚱뚱한여인이 이러케 뭇는다

그러면서 집안과 그중에도용히를 찬찬히 뜨더본다 윤씨란 이집 성이다

▽▽……그늘에 잠든石殿—德壽宮所見—

學藝

七月創作評……(其五)
「이야기」의不足과構成의稀薄(二)

李石薰

다음에 영로가 東京으로 가서 勞働運動에 投身하엿다는것은 그가『萬歲사람』인것과 局內에서의 活動으로 미루어 過히 어색하지는안흐나 그러나 좀더 그必然性을 追窮햇서야할것이다。그리고 가튼局員이면서도

異 民族인 兩者間의 텔리케이트한 感情의 葛藤을 좀더 解剖하엿드면한다。끄트로 이作者에게서 느끼는것은 用語의不注意와『머리』보다『손』이 몹시빨러서 彫琢하기前에 陳雜으로기운다는것이다。(계속)

몃개의主要한 雜誌에실린 어떤作品들은 대개 읽어보누라 하엿다。作品數로 十二三篇 그中 [illegible]人은不過둘뿐이란것은 좀섭섭한일이엇다

아러케 읽어가는동안에 平素의 느낀것을 더한層 切實하게한것은 朝鮮文學은 너무도『이야기』가不足하고 構成이대단히 稀薄하다는點이다 三四枚의短篇에『이야기』를期待하면 얼마나하고 構成을꾀하다면 얼마나 할것이냐 하는이가잇슬는지 모르나 내가 말하는意味는決코大小가아니라 그

密 度를가르침이다 다시말하면『이야기』가生活에 뿌리를 박을어 勁하고 單調로우며 戱曲이업고 威嚴이업스며 그리고 뚜렷한 한개의 骨格美가 업다는것이다(新年에 이것도小說인가?하는 느낌을가지게되는 作品을 가끔發見하는것이다。)

여러달에 異色잇는作品은 美濃部氏의『佛蘭西祭前夜』다。羅馬부터에소ー퇴ー하지만 異鄕에서의 哀明하지못한『란서ー生活을하는 그러나純情의 女主人公과 그남편 및 늙은어머니의 의 서그롭만큼 외로운生活의雰圍氣를 잘나타내엇다。

그러나 어쩐지 十八世紀의로맨스』文學을 읽는것가튼感을주엇고、자칫하면 通俗小說로 떠러질念慮도업지안타。끗까지읽고 난뒤에 비로소 이作品은 決코 通俗小說이아니라 도리혀 純文學이가저야할 조흔意味에서의通俗性을 잘捕捉하고잇는點을 빗보아서는안될듯십다。

그러나 이作品의 重大한缺點은 單純한 한개의『이야기』로 맨쳐한『物語』에서 더나가지못햇다는것이다。手法이새로우면서도 今日의文學과는 좀

距 離가잇다고보이는理由는 이作品이가진 現實性의 稀薄에잇지안홀까한다。

『姉妹』(朝光)——韓仁澤氏의作品을 오래만에 자미잇게 읽엇다。그러나 前半은 조앗스나後半에가서 病身언니의 愛欲的煩惱와 은히의 血肉的相剋을 平面的으로 性急하게 取扱하야長蛇를 逸한憾이 업지안타。

그리고 現在幼稚園保母로잇다는 나이찬은히의 感情이 十六七歲少女의 感情에서 더나가지못하게 그리어진것도 적지안흔 缺點이다

나는 이作者에게 이조흔材料를가지고 좀더만흔 紙面을어시하야 다시 쓰기를切望한다。

柳致眞君의 戱曲『姉妹』三幕이 [illegible] 『朝光』에發表되엇다。[illegible] 戱曲界에 [illegible] 유니크한 存在인 柳君의 作品을 대해 나의기대가 오래간만에 컷든만큼 失望도컷다。

대체(戱曲)의形式主義者로 自任하는 近代劇正統派?의 이作家는 戱曲이란 形式과構成으로만 되다고믿고잇는지는모르겟스나하여튼이몃해를두고『알몽』는 조끔도안한드키보힘만큼 四年前이나只今이나 조끔도 다름이업시『알』이서잇다。『姉妹』에잇서서는 外國가서 數十年식살다가 도라온 朝鮮사람들만이 모여서 제멋대로 짓거리는것가티 그러케도어색한感을준다、한두가지實例를든다면——

『어쨋든 제교제범위는 우에선 총독부로부터아래는 면소 주재소까지 안가는데가업습니다』(美主事라는아마시(사내의말)

『…정숙씨일이 어듸다른사람의일입니까? 바로제일이지!』(同上人의말—정숙씨일이자 내일이죠—하는뜻인듯—筆者)

『에그 이빼라 달이면 저러케 고울수가잇나 마님은 참 복 만슴니다』

『얘가 기집애가에망정이지 사나라면 도장관도가이 경부도가이 그럿소』(대체무슨뜻이냐?)

『우슴거리가 되면 이우에 더 되겟서요』

—계속—

▍▍戱 曲▍▍ 風浪과의싸홈

예ー츠作 林學洙譯

『쿠훌린의형상』그는 여기왓도다 그대의 탄식과 아까그여인의술품이 입종의꿈속으로 그를가저오게하얏도다。그러나 나의조력이업시는 그대는 결코 그를손에 넣지못하리로다。내외조용이로오랑 내 그대의 눈을 어로만저그대에게시력(視力)을 주리라。

『에머르』(이저쿠훌린의 유령을 보고)날보세요!날보세요!

『쿠훌린의형상』 그는 가까이 잇는것갓지만 아직도 그거리는 멀고 멀도다。그대와 그와의사이에는 한세상이 가로막은듯하노랑 나는 그대는 그를볼수잇게 하얏지만 나는 그대를 그에게 보이도록은 못해

『에머르』쿠훌린! 쿠훌린!

『쿠훌린의형상』 조용히 부인! 그는 볼수도 드를수도 업노라 그러나 대까를 부처서 내 그대에게 그를 줄수잇노라。(바라기타의 치는소리」드르랑 저 바다의 말들의 요란한 발굽소리를드르라! (3)『마나난』의 딸『팬드』가 왓도다。그가 사륜마차(四輪馬車)에 오르만저챗직을드럿도다。그럼으로저말굽소리가저러케요란하도다。그는 그대에게서『쿠훌린』을 빼서갈려고왓도다 영원히영원히 빼서갈려고 그러나 나는저『팬드』의 원수로라。그렁으로 어떠케하던저여자를방해할까 나는그대에게 가르처줄수잇노라。(여자끝3 ×마나난은『걸드』愛蘭傳說中의 海神의靑年)또는 死者의世界를支配하는海神。『팬드』는그의안해라고 하얏고 뿔이라고도하얏슴 그는魔術로서 英雄『쿠훌린』을 재것으로만드려다고。뒤에도나오는바와가티『시ー』는女人『팬드』라고하얏는데『시ー』란말은 아이는妖精그렁으로『팬드』는『마나난』의妻로서『시ー』의一人

『에머르』『마나난』의딸『팬드』여!

『쿠훌린』의형상 아직그가여기잇슬때 마입그대가 아까말한대까를지를한다면 그를붓치지안흐리랑。그러나한번 그가마나난의집으로끌려간날이면 그대는 영원히그를일이리로다。바다의말들의사랑하는사람들은 결코귀리를 놋기는일도업스며 바다의말들은 그여인을결코노치지도안나니라 못할께 어데잇스리?

『에머르』 무슨대까던지 지불치

『쿠훌린의형상』 아까그대는 어느때나 그의사랑이다시그대에게로도라올거라는、어느때나 그대는 맛치 처음결혼하얏슬때와맛창가지로 그와나란히 노변에안출수잇슬거라는 히망을 드로하얏겟다。

『에머르』 그것이 나의가진全部의히망、나의목숨을 부치게하는 유일의것임으로。

『쿠훌린의형상』 그히망을버리라。그러면 그가다시살아나리라

『에머르』 안돼요、안돼요!

『쿠훌린의형상』 그것이아니면그대는 귀신들에게 이바지할도무어이잇나뇨?

『에머르』 웨귀신들은 그런 히생을 요구할가요?

『쿠훌린의형상』 귀신들은 살기는하얏지만 죽은거와 마찬가지로 히망업는 사람들에게는 봉사(奉仕)하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이므로。

『에머르』 나는 그까짓 모든 귀신들보다 하나인 그를 엇겟소 그러나 나는 결코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는 안허요。

(시ー의 여인 팬드가 드레은다。에머르은 폭에서 팔을 빼돌고 그를 찌르는듯 휘둘른다)

『쿠훌린의형상』(우스며)칼로이여인을 버히려구! 이여인은공기와가튼 육체를 가젓도다 비록그대 안는육체를가젓도다 죽지들의비탄이 그를다시불려오기는하얏지만 한번그가 이기슴을떠낫진대 한번그가저고해(苦海)를 건넛진대 한번그가『마나난』의집으로 드러갈진대 그는모다들링각하야버리는 귀신들가티 되리라는것을 잇지말라。

(시ー의여인『팬드』가 무대정면에 쪽구린『쿠훌린』의 유령의주위를『팬드』하며 도라단인다。그가꺼여난에따라 딴쓰가점점빨라진다。가끔가끔그는긴머리단을 그유령의머리우에떠려트린다。그러나그에게 키쓰는하지안는다。그는현금과피리와북의반주에맛추어 딴쓰한다。그여인의마스크와、이상(衣裳)은 그를인간보다한 우상(偶像)가티보이기위하야 금이나구리나주석과 은인것가티 암시하여야한다。이암시는 그의행동에도반복된다。그의머리털도역시 금속성의 성질을 띄여야한다。이땐쓰의목적은 쿠훌린을께워가지고 그가팬드를따라서나가게합니다。아마쿠훌린은『키쓰』를 청하리랑。그러나 키쓰는허락되지안흐리라)

『쿠훌린』의형상 그의사랑을포기한다고 외오치랑 그대는 그의사랑을 영원히이저버린다고외오치라、(팬드와『쿠훌린』이나간다)

世界的提琴家『티보ー』의印象 ⑤

金管

크로이제르全曲을통해서도 템포는變幻自在로、伸縮되다、물론 모ー자르트에서보는것과가티 洗練된 이데ー의發露에서오는要求에서다 그러나 크로이제르에서는情緖를 稀薄케하고잇다 말하자면形式上으로보면 技巧의極致와淨化를 認定할수잇는대서 端麗한스타일를차를수는잇지만 迫力은업다。(내가가지고간 樂譜는 모ー자르트協奏曲과 크로이제르들다 어렌부르版으로 演奏와對照한結果、올주독스流로서 判斷한다면 티보ー의演奏는正軌는아니다그러나樂譜대로키지아니한다고그의演奏가납부다고하는것은아니다。단지티보ー의演奏樣式이純粹한 佛蘭西傳統에 뿌리를박고잇는것으로、結局 提琴奏法을古典의常道로復歸하고잇는 傾向을 認定할수잇는것이다)따라 크로이제르 에서는 誇張된表情이때때로 꼬리를내밀고 잇다。쉽게 말하면 티보ー의 크로이제르는 지나치게 아름답고 纖細하다、물론 크라이슬라와가티 自己의 個性을 露出시기는따위 本質的으로相違하고잇는 解釋으로되것과는 달르지만、티보ー의本領은 베ー토벤에는잇지아니한것만은明白하다。即티보ー의『音』와奏法으로는암만해도 베ー토벤에는 無理가생긴다。

티보ー는 모ー자르트의古典樂曲만의解釋이 훌륭한것은아니다 그의純粹한技術과 또그의情操가 豊富한音樂的感情은 近代樂曲에서도훌륭하다。當夜 알베니스의『마라게니아舞曲』『드뷰시ー의遊吟詩人』에서 切實이表現되는 嚴格한傳統에即한 時代的精神의雄感은、到底이筆紙로담어낼수업다 前回에말햇드시 純潔、微妙한 音과運弓法、運指法의絶妙 熟練、가장基礎的原則을把握한티보ー만으로도 天下一品인特徵이고 따라 그의藝術이 훌륭한것을立證하는것이다。

×

티보ー가 正統的모ー자르트를 들녀주고 또는近代樂에서 都會人의解釋을보여준 當夜의演奏는 獨逸音樂의 나뿐點만눌담고잇는 이나라의樂界에 驚異的인感銘과 아울러 기픈刺戟을 던진것으로 밋는다。

끄트로 附言할려는것은 티보ー의레코ー드다。以上 밝인바와가티 티보ー의 音은 純潔、柔和하고 透明한고로 오날까지의 레코ー딩技術로서는 完全이 錄音하지못하고잇다 原來의 量이 적은音을 크게、强하게 錄音할수는잇지만 實演에서듯는 柔軟性을가즌 그러나 엑센트릭한感情이훌르는 音을 保管하지는못한다。그럼으로 다른 名家들의 레코ー드에比해서 枚數로보아도 만치못할뿐더러 効果도조치안타 단지 피ー스로서數種과 푸랑크의奏鳴曲과 포ー레의奏鳴曲을推賞할만한程度다。

(티보ー의演奏批評을 細密하게 記錄한原稿를 新聞社에보내는途中 濡失하게되야 이제짧은時間에 새로이쓰기어려웟든고로 骨子만을 再記하는데끄린다。七月七日記)

夏季休暇利用案

安靜한生活보담 活動的生活을

普成高普敎務主任 朴格欽

글세올시다 갑작스러 무르시니 별로 이러타고할말슴은 업습니다 물론 일변중에서 방학이라면 夏期放學이 제일 오래되는만큼 學校에서 年中行事로 하는것은 잇지마는 그개야 무어 어느學校나 다가지지안습니까?

그런데 우리學校로서 여름放學에 第一留意하는것은 生徒들의 健全한 身體입니다 事實 學校敎育이라는것은 主로 知育에 置重하고잇는만큼 完全한知力을 가지기 위해서는 健實한體力을가지는것이 必要하겟스므로 放學동안에는 될수잇는대로 健全한 身體를 가지기에 努力하지아니하면안되겟습니다。그럼으로 放學동안에는 宿題가튼것으로서 이미 배운것을 잇지안는 程度로 複習하는데 그치고서 運動을 만히 하는것이 조켓습니다。運動에잇서서는 그體質에 따라서 登山도하고 海水浴가튼것을하는것이 조흔데 이러한 運動을 하는동안에 主로 博物方面에 留意를해서 或 動植物을 採集도하고 礦物採石가튼것을주어오는것도 좃습니다。그러고는 寫生畵가튼것도 그러케 하여서 二學期에 그것으로 展覽會를 열어서 그中에 優秀한것은 賞品을 授與하기로 합니다。뿐만아니라 夏期放學동안에 日記나 隨筆이나 紀行가튼것을 반드시 한사람이 하나以上式 해오라고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相當한 成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것은모다 健全한 身體에서 訓鍊밧는말하자면 愉快하고 明朗한 情緖를 陶冶하는 方法이 될줄로압니다。

끄트로 말슴할것은 다른아니라 中學生이란 아모리 修養時代라고 하드래도 實社會에對한 認識이나 體驗이 不足합니다。그럼으로 시골잇는 生徒들은歸鄕을 하게되니까 말할것도업지마는 서울잇는사람일지라도 夏期放學에는 될수잇는대로 農村으로가서 우리農村의 生活相이 엇더한가를 直接 눈으로 보고 體驗을해보는것이 조흘줄로압니다。農村子弟들이라도 여기와서 中學까지 다니게되자면 그家庭은 多少 餘裕가잇다고하드라도 事實 農村의 一般的 生活狀態라는것은 學窓에잇는 學生들의 想像하는 程度로서는 到底히 理解할수업슬만큼 逼迫할줄로압니다、그러니까 이러한 實相을自己네가 直接 見聞도하고 體驗을한다면 첫재 消費心理가튼것도 업서지고 또한 그러는동안에 社會的自覺이라는것도 생길줄로압니다。

그리고 娛樂이나 遊戲가튼것을해도 室內에서 노는것보담은 될수잇는대로 박게서 노는것이조코 안저서하는것보담은 서서하는일을 取하는것이 조켓습니다。다시 要約해서 말하면 夏期放學은 될수잇는대로 身體의健全에서 心神을 休養도 訓鍊도하고 休養도하기위해서 安靜한 生活보담도 活動的生活을規則的으로하는것이 조켓습니다。

夏休中 昆虫採集의 意義와 方法 ④

李軒求

이外에도 여러가지 採集方法이 잇지만은 設令 한두개 採集한것이라도 뒤處理를 잘하지 못하면 昆虫의 貴重한 生命만 犧牲하고 우리의게도 그다지利益이 되지못하는 일인고로 採集하는方法은 그만두고 處置方法에 對한것을 若干 말하려합니다

採集昆虫處置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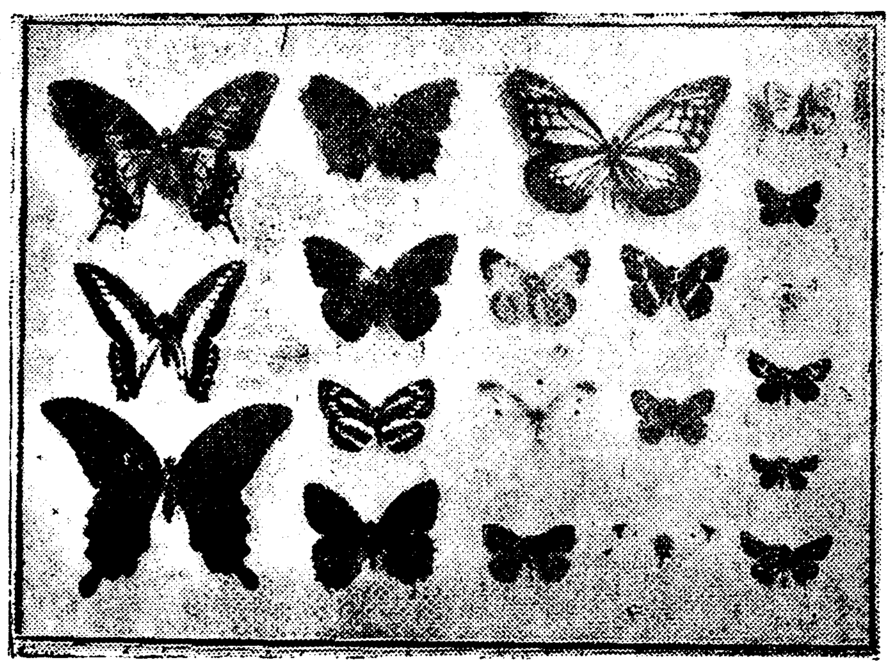
以上과如히 採集한 昆虫을長期間 毒壺中에 그대로 放置하야두면 腐敗또는 損傷할 念慮가 잇는고로 採集品은 될수잇는대로 採集當日에 適當히 處理할必要가 잇습니다『말잠자리』나『오음사개』와 가튼大形의 昆虫은 歸家後에即時 腹面의中央을 縱으로切開하야 內臟을버리고 脫脂綿이나 紙○等을塡充하야 腐敗하지아니하도록 處理할必要가잇고 蝶類蛾類等은 兩翅를 自然의形態대로 展翅하야固定을 식히여야하는데 萬一採集後二三日中에 展翅를아니하고放置하야두면 身體의各部가 硬化하야 自然의生態대로 整形을하려면 特別한方法을 要하여야하는고로 採集後아모조록 速히展翅或整形을할必要가 잇습니다 展翅板 昆虫의兩翅를 展開하고整形을하는대 一般으로 使用하는것이 展翅板인대 商店에서 普通販賣하는것은 大中小의三種으로 中央에縱溝가잇고 縱溝兩側에는 桐板이잇서서 縱溝에虫體를너코 兩側相板에 兩翅를 展開하야 固定케하는것입니다 展翅針 翅形을 展開하고 虫體를固定하는데 쓰는바늘로서 有柄或無柄의 長短各種이 잇스나 先端이尖細하고 녹이잘스지 아니하는것이 第一適當합니다。

昆虫標本製作法

漬液製作法 昆虫의 幼虫、蛹이나 介殼虫、蝶等肉厚한虫體는 採集한後七○%알콜에이나 十倍假量希薄한『호르마린』液中에 너어서保存하는것이 完全합니다 乾燥製作法 展翅板에 固定한虫體가 夏節이면 三四日中에乾燥하게되는고로 乾燥後에各類에分類하야 適當한記箱로 標本箱에整理하야 保存할必要가잇습니다 商店에서 販賣하는標本箱은 虫體를固定하는데 適當한裝置가되야잇지만은 自己自身이製作하는境遇에는 底面에『콜크』板을膠着하는것이便利합니다 虫體를固定식히는바늘은 鞘翅類昆虫은 左右兩翅中央에꼿지말고 右翅中央部에서 胸部中央에 비스듬이 꼿는것이 조흐며『바되블』『덤바벌레』『浮塵子』와如한小形昆虫은『세루로이드』製昆虫台紙에『다라간트』고무糊로 膠着하야 昆虫針으로 刺置하는것이 便利합니다

名籤 昆虫標本箱에는 昆虫의名稱 採集場所採集時期等을 記入한 名籤을 반드시貼付하여야하는대 그名籤을 昆虫標本一便에 膠着하는것도 조흐나 後日標本을다른箱子에 옴기는대 不便한고로 그보다도 昆虫과가티 昆虫을 固定한바늘下部에 꼬저두는것이 便利합니다

이와가티 苦心製作한 標本이지만은、保存하는方法의 不注意로 因하야 虫害로損傷되는일이 種種잇는고로 標本箱一隅에는『나후다린』과如한 防腐劑를반드시 挿入하여야합니다 ——完——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잇다。

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鄕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中等以上程度로함)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讀者社交室

▲小生이 スカアル(一人乘短艇)를하나 맨들고시픈데 設計及經費와 スカアル 漕法에關한書籍과 特히 釜山等地에 製造者가잇거든下敎하시압 一讀者

▲姜修鎬兄님께! 弟는昨年××寫眞館에잇던 永均(一名赤사쓰)올시다 記憶나십니까? 鄕兄님과도가티게십니까? 下記住所로 速히 住所를通知하여주십시요 京城府鍾路五丁目三四八 金永均

▲中學卒業程度로 男女不問하고 私立學院敎員一人을 招聘하려하오니 左記規定에 合意하신분은 本欄又는 即接照會하여주시오 一、學院所在地‖農村(交通便利)二、俸給‖年二百圓程度 黃海線天壽驛前 東新學院

▲小生은某高普在學中이온대卒業後醫專에入學코저합니다 小生의올은귀(右耳)는 조곰도들니지아니하고 左耳는똑똑이들리나니다 先生님이여 저는將來醫專에 入學할수잇슬가요 南石洞 一愛讀者

▲小生은 今年二十一歲이고某高普에 在學中입니다 卒業하고 小生은 中國에잇는 어느軍官學校에 入學코저하오니 中國語는 몰나도 入學할수잇슬까요 外國人이되으로 入學키는 어렵지안을까요 試驗科目은 무엇무엇인니까? 先生님이여 未安하지만 小生은 꼭 그方面에 出身코저하오니 下敎하여주심을 伏望 小生 CH

▲只今으로부터 十四年前그넷날에 朝鮮黃海道長淵郡海安面仙橋里橋川洞에서 本人(兒名)李濟石과 섭섭히 作別을 告하든先親 尹東魯氏의三男 尹康兼 當年二十九歲의 男子이온대 그간 日本內地로 가섯다는말은 風聞에 드럿사오나 四海諸者兄님이시여 혹시 尹康兼氏를 아시는분이 잇사오면 左記本人의게 住所를 알리어주시오면 고맙겟습니다 朝鮮黃海道安岳郡銀紅面雲鳳里 李貞權(兒名濟石)

▲或書欄기피 雜誌『東光』一九二七年(昭和二年)八月號가 잇사옵거든 左處로惠讓하십시요 薄謝를表하겟습니다 京城市外西巍島里八八 姜駿遠

▲前略하옵고 詩文學에뜻이잇는이땅의 젊은兄님(未知)들이시여! 只今이땅에도 詩人이그리 만라고는할수업스나 그리적다고도할수업는 詩人들中에 兄님들은 어느詩人을 思慕하며 私淑하십니까? 이것도 그리헛되잔난은 아닐듯하여뭇사오니 直接 (될수잇는대로)通知하여주시요 그러면 社交室을 通하여 統計를 諸兄압페알리겟습니다 平北定州郡葛山面益城洞 金麗淳

▲早稻田法律講義錄한벌 (될수잇스면最近것) 讓渡해주실분이게시면고맙겟습니다 意向이게신분은本欄又는左記로 一報하여주시요 大邱局私函七號 鄭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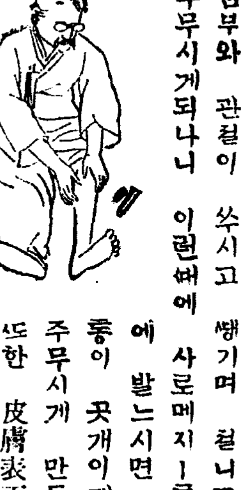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앞은곳에 발느면곳낫는 사로메치ー르

두통 치통

두통 현기증 변두머리나 치통은 뜨거운볏이 내리쪼이는 요새에는 몹시 알키쉬우나 이런때에 사로메치ー루를 조곰발느시면 그렇케심하든 고통이 곳개이며 지금와서 흔이사용하시든 내복약처름 인이백이거나 위장을상하는일이업시 간편히 사용하야 늣게듯는 患部에 직접작용하는약임으로 속히효과를어들수잇습니다



류ー마지스

요사이 배오르는 류ー마지스는 신경통 축근마지스가 재발되야서 더욱 고통을늣기실줄밋습니다 심부와 관절이 쑤시고 쌩기며 절니고 압퍼서 밤잠을 못주무시게되나니 이런때에 사로메치ー루를 압픈곳의피부에 발느시면 그럿케 심하든고통이 곳개이게되며 밤잠을 잘 주무시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皮膚表面에 아무고장이업시 筋肉深部가붓고 쑤시며 고통을주는곳과 運動競技 혹은평지낙상으로 멍이들거나 삐인곳에 사로메치ー루를 조곰발느시면 약기운은 피부를통하야 深部에침투되여 皮下筋肉과血管에 吸收되여서 병근원을다스리며 炎症과鬱血을삭게하고 부은곳을 개이게하며 고통이 빨니사라집니다

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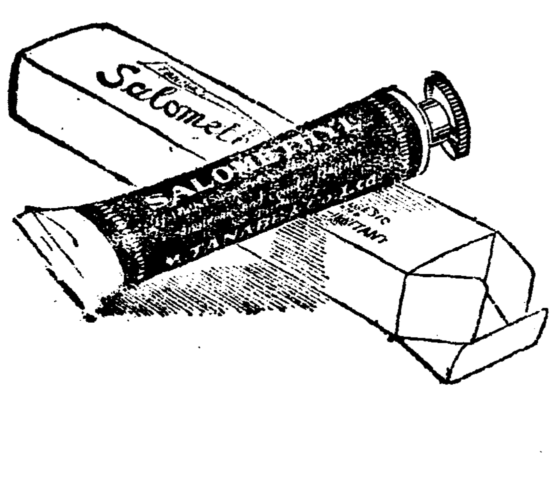
職務過勞 運動競技 또는 먼길을걸어서생긴 근육과 관절의疼痛 炎症 疲勞에 사로메치ー루를 조곰발으고 살々문질느시면 환부에溫感을주며 鬱血을삭게하고 부은곳과 疼痛과 疲勞가一掃되야 원기잇게 몸을 회복식혀줍니다

家庭應急常備藥으로

어느가정에도 한개식 준비하시사 頭痛…齒痛…견비증…담절니는데…허리와다리압푼데…피부가려운병에…목이압흘때…빈대 벼룩 모기에물니데에사용하시면 속치됨으로 한시도잇지못할약입니다

陸軍承認藥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鮮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S-K-37

連載野談 (五九)

扶餘記

申鼎言 作
金龍煥 畵

북을찟는그칼〔四〕

왕명을 바든 군사는 곳 숩풀잇는 곤처로갓다。

그 숩(叢)은 한갓 울창히 어울러저서 손까락하나 드려갈틈이 업슬것 갓햇다。

그리고 풀향긔、나무닙향긔、꼿향긔、흙향긔、한데 어울러진 새로운 향긔가 그윽히 코를 찌르는듯하얏다。

그 군사는 창끗으로 이리저리 숩풀을 헤칠새

『땅! 땅!』

하고 창끄테 마치는 쇠소리가 숩풀속 한 복판에서 들녓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 군사는 바로 숩풀속을 헤쳐니 그속에는 큰 철궤하나가 노혓엇다。

『이것이 분명히 이상한 철궤로구나。』

하고 군사들은 곳 그철궤를 들어다가 왕께 받치엇다。

대무신왕께서는 또한 이상히 생각하사 곳 시신으로 하야금 그철궤뚜경을 열게하셧다。

그철궤속에는 금으로 맨든옥사(玉璽)와 보검이 들어잇다。

『아아。 이것은 분명히 상제(上帝)께서 내리신것。』

하시면서 대무신왕께서는 하늘을 향하사 두번 절하시고 그 옥사와 보검을 몸에 진니시엿다。

이지음에 키가 구척이나 되여 보이고 얼골빗은 매우 히며 눈에는 광채가 떠도는 장정하나이 왕압헤 이르러 공손히 절하얏다。

대무신왕께서는 크게 의아하신 괴색으로써

『너는 누구인고?。』

하시고 그 장정을 향하사 성명을 무르셧다。

『소신(小臣)은 북명(北溟)에잇는 괴유(怪由)로 알외오。』

『그래。 어째 왓는고?。』

『듯삽건대 대왕께서 부여를치시는중이라하와 온것으로써 알외오。』

『그뜻이 무엇인고?』

『소신을 의심치 마시고 행군에 따르게하시면 억만명시부여왕의 머리를 베혀 밧칠것을 알외오。』

『그러면 네뜻대로 행군에 쫏게해라!。』

하시고 대무신왕께서는 괴유로 하야금 선봉을 삼으셧다。

그리자 뛰미처 또한 장정하나히 왕압헤 이르러

『소신은 적곡(赤谷)땅에 잇는 마로(麻盧)이온바 이번 대왕께서 부여를 치시는데 길나잡이로 부려주시면 부여의험한 산천내맥을 알려드려 행군하시기에 편하심을 도으려 알외오。』

하고 머리를 조으며 지성으로 말하얏다。

『네뜻이 과연 그러하면 행군을 따라 각근히 거행할지어다!。』

하시고 대무신왕께서는 또한 마로로하야금 향도군(嚮導軍)으로삼으셧다。

대무신왕께서는 이와가티 뜻아니하신 옥사(玉璽)와 보검(寶劍)과 용맹한 장수 두사람을 어드신것을 신긔히 생각하시는중 특히 경사가잇슬 경우에만 제절로 뜨거워지는 가마솟을어드신것과 룡마(龍馬)거루(駏驥)를 어드신것이 모두 심상치아니한 징조로 생각이되사 압길에 큰경사이잇슬것을 크게 깃버하시기를 마지아니하셧다。

이에 대무신왕께서는 그와가티 압일이 반드시 길하리라는것을 스스로 미드시며 행군을 독촉하사 부여국 남방지경에 당도하셧다。

그런데 부여나라 남방은 항상 진흙이 만하야 발에 너지아니한 사람이면 접촉하기가 어려왓다。

이에 대무신왕께서는 그 진창한 진흙으로 말미암아 전진가 어려옴을 보시고

『허허。 이것은 짐의 때이 바하야 대사가 틀어지는고나!』

하시면서 크게 탄식하시기를 마지아니하셧다。

바로 이때!。

부여왕대소가 고구려군에 곤전흙으로 말미암아 진퇴가 어려운 곤경에 빠진것을 알고

『옹。 고구려군사는 독안에 들어잇는 쥐를 잡기보담도 오히려 쉬운일 이것은 모두가 상제께서 도으시는일。』

하면서 대군을 몰아 고구려진을 향하고 살대가티 달여나오기를 시작하얏다。

新進스타名鑑

▲미키·루니(米) 紐育브룩크린出生 아조젓머이때부터 兩親과함께 보드빌에出演。지금兒童役으로 相當히팔리고잇다。出演映畵는 四十本以上。그中에主要한것은『아! 初戀』『小公子』等 지금 MGM專屬。

▲로사린드·럇셀(米MGM) 카네티캇트·워터버리에서 一九一一年六月四日出生。아버지는 法律家 어머니는 雜誌記者。처음에는 文學 神學等을 工夫하다가 舞臺로들어가다。主要한 그의映畵는『惡夢』『봄스밤』『結婚十分前』『男子禁制』『中國海』『自殺俱樂部』『갈사의使者』等

S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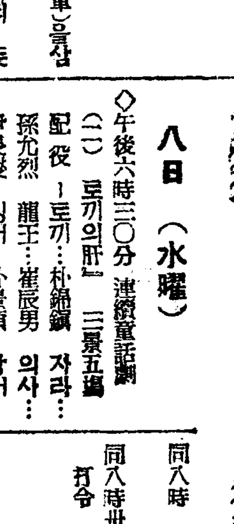
▲안제라·사로카(獨) 유고슬라비아出生。維也納舞臺로부터 映畵로 들어와서『制服의 處女』『짜단』『鄕愁』等

▲잔·셀베(佛) 一九一一年九月卄四日生 白耳義안뻴스出生。브뤼셀音樂學校를 나와가지고 마레이劇場에 들어갓다가 巴里로 온다。一九三二年 映畵로 들어와서『犯罪者』『라·마제레블』『녹아몬』『젊은시절』『앤질』等

★曆★

七月九日(木)
建甲午五月大(廿一日)
壬辰·水·奎·收
●祭祀納財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라디오



八日 (水曜)

◇午後六時三〇分 連續童話劇 『토끼의肝』(二) 三景五場
配役 ─토끼…朴錦鎬 자라…孫允烈 龍王…崔辰男 의사…尹長燮 잉어…朴景順 상어…金東漢 포수…朴民化 畵工…朴英鎬 其他多數 柴橋童心會
指揮 朴興根 作奏 迎好吉 作曲 柳基鎭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〇〇分 課外講座(一) 『폰페이와童話』 延專敎授 鄭寅燮

同八時 講演 〃文化發祥과地勢〃 徽文高普 金道泰

同八時卅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金德鎭 大笒 方龍鉉 細笛 梁成初 長鼓 韓成俊

同九時 新民謠 一、孤獨과怨恨 二、강강이打令 三、제비歌 四、春踊歌 五、悠悠別恨
唱 松岡 橫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九時三十分 歌謠 一、길軍樂 二、黃鷄詞 三、孔明歌
金蓮紅 金美花 大笒 金永根 鼓手 李素香 丁元變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靈谷榮
同 七時三〇分 講演 脇鐵
同 八時〇〇分 (東) 絃樂合奏 모기렙스키絃樂合奏團
同 八時二〇分 (大)人形淨瑠璃 竹本伊達太夫外
同 九時〇〇分 (東)長唄 芳村伊久四郞 芳村金五郞

九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東)吹奏樂 指揮軍樂隊長 內藤淸五 陸軍軍樂隊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氣候와生活』 李克魯

◇同六時三〇分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 1、달밤……하리슨作曲 2、여름……洪蘭坡作曲 二、피아노獨奏 1、미뉴엣또 파데렙호스키-作曲 2、即興曲 슈-베르트作曲 三、獨唱 1、자장가……브람-스作曲 2、사랑스런月桂꽃……안-作曲
獨唱 鄭玉善 피아노獨奏 鮮于惠 伴奏 李興烈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二) 水中動物이야기 城大豫科生物學敎室 趙福成

◇同八時 講演 森鷗外의藝術 咸秉業

◇同八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夢中歌

◇午後九時 〃라디오·드라마〃 〃사랑에울고、돈에속고〃 一幕─林仙圭作
配役
黃鐵洙…………黃澈
紅桃(그누의、妓生)……車紅女
沈影湖(紅桃의戀人)……沈影
春外春(紅桃의동무妓生)……南宮仙
閔海朝(影湖의結婚女)……沈京順
朴永譯…………朴齊行
閔相玄(黃의친구)……柳玄
金相洙(同)…………金影水
沈鳳玉(沈의누이)…………金素英
水蓮(紅桃의동무)……韓銀珍
沈의어머니…………金仙草
沈東浩(影湖의父)…………金東圭
演出 朴珍 靑春座

第一放送

◇午後六時〇〇分 (大) 童話劇
◇午後六時二〇分 (東)基礎英語講座 大阪…
◇同 七時三〇分 (東) 丸山順太郞
◇同 八時〇〇分 (大)西昇中… 寶塚少女歌劇月組生徒
◇同 八時四〇分 (大)俗曲
◇同 八時五五分 (東)俗曲 市三
◇同 九時五分 (東) 講談 虎田喜

十日 (金曜)

◇午後〇時〇五分 古譚 『義俠出世』 李雲林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食慾不振과그原因』 府民病院內科長 朴鍾榮

◇同六時三〇分 唱歌 加明普通學校生徒 伴奏 咸福順

◇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

◇同八時 趣味講演 『바다물이야기』 韓炳俊

◇同八時三〇分 詩調 『瑤池鏡臺』(二) 一、平時調 二、지름 三、解說時調 李光洙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八時五〇分 배따라기 一、배따라기外一 二、장기타령 三、개타령 四、자진반불가 金紅桃 金泰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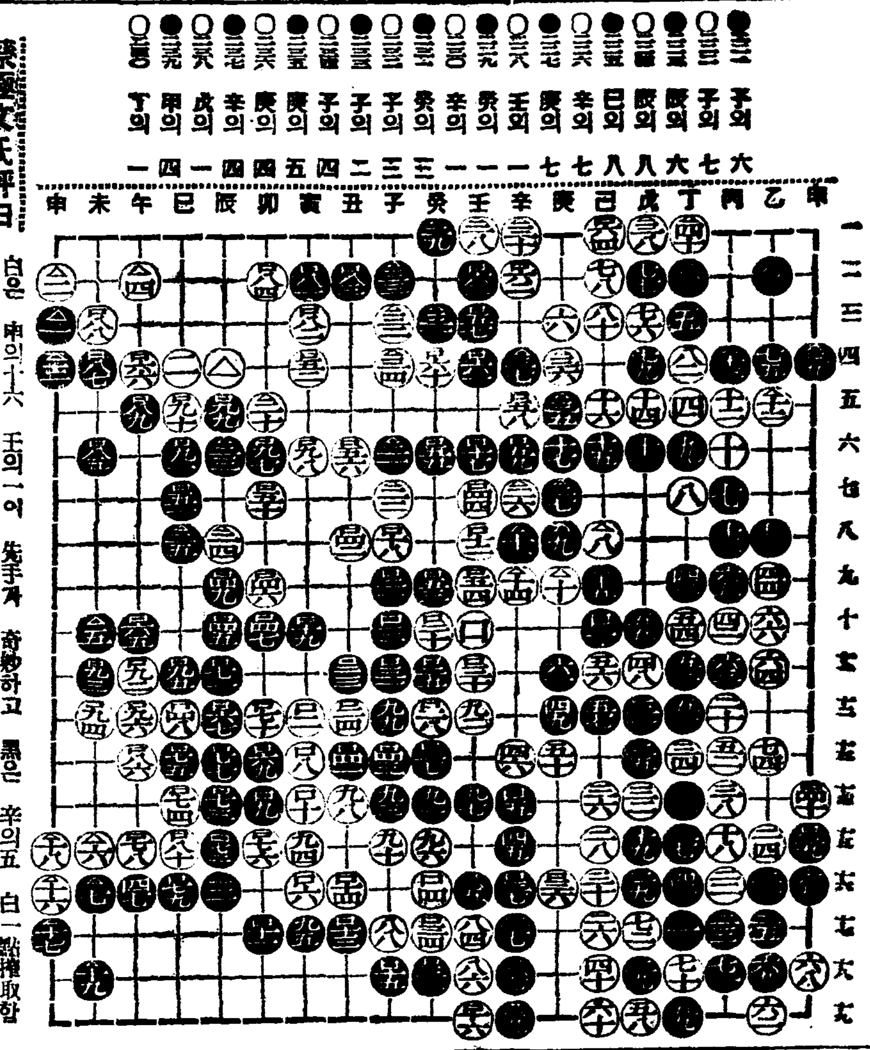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 一、레너獨唱(가)菩提樹 (나)그네는愁心……슈레자크獨唱─슈-베르트作曲 二、레너獨唱(아)사랑의노래 (나)사시못은사랑…추첨떼、루-고獨唱─자마作曲 三、소프라노獨唱…마리아젤리-레獨唱 歌劇『椿姬』中「지난날꿈이거라」……베르디作曲 (레코-드演奏) 作曲朝鮮音樂協會 李升學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琵琶 松浪旭東
◇同六時(釜)童話劇 釜山고도모協會
◇同七時三〇(小)講演 海崎三郎
◇同八時 二曲과三曲合奏 福谷知秀外
◇同八時三〇(東) 獨唱 內田榮一
◇同八時五〇(東)浪花節 春日亭淸鶴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4─

白 丁壹春
黑先 柳鎭河



禁極文氏評日

白은 申의十六 壬의一이 先手가 奇妙하고 黑은 辛의五 白一點權取함이 相當하다 其餘는 終局을 告하으로 別無點筆可考慮하며 惟待總論而 一覽이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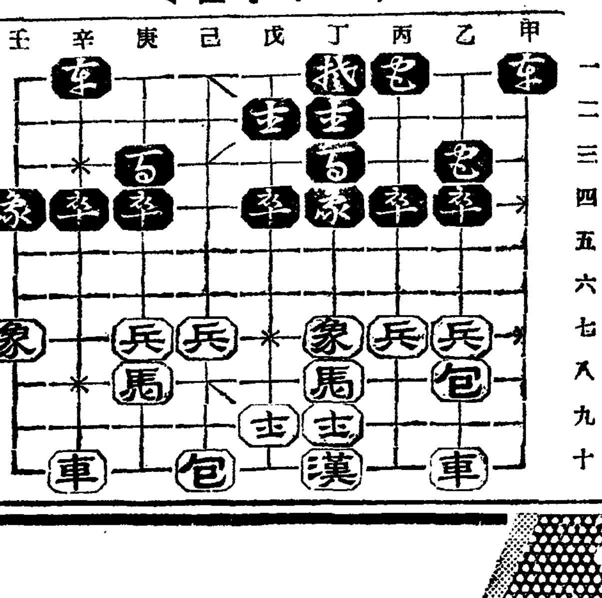
베니스의 배ㅅ노래

물의도시 베니스의 하로ㅅ밤 우연히 알게된 두남녀의 부지럽슨 사랑。歌劇『호프만의 이야기』에서 재료를 취하야 맨든것。깔쁨은 겔할트·람프레히트요 主演은 리다·바로바·구스타프·프릴릿히의 두사람으로 獨逸우파社의 作品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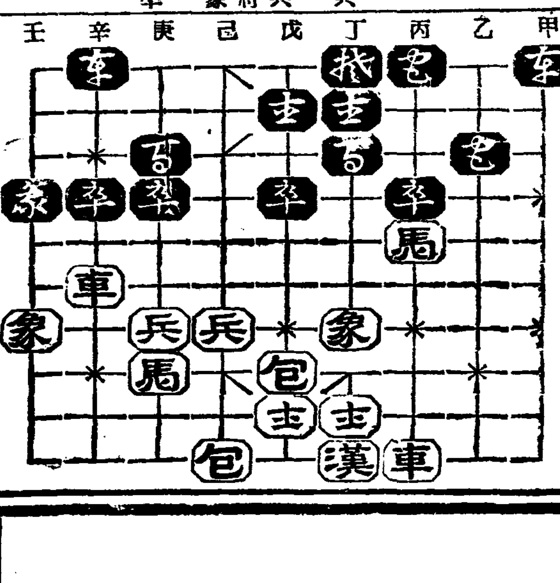
漢先手 減一兵 李在鳳
楚 李英鎬

◀十三手圖▶



◀十四手圖▶

辛十車─辛六
丙四包─丙五
乙六包─戊六
丙一包─丙七 打兵
乙十車─丙十
丁四包─乙七 打兵
呼將
丁八馬─乙七 打象
丙七包─丙一
乙七馬─丙五 打卒
乙四包─丙四



ウテナ水白粉

우데나

─어야말로全女性의꿈가튼實現!─

땀과脂肪에밀니지안코 살바탕을자연스럽게!

整肌作用을兼한近代的白粉

ウテナ水白粉이무더운盛夏에도땀脂肪에밀니지안코白粉으로人氣的絶讚을밧고잇는것은、낫(顔)에美麗하게잘피며、化粧水와가튼作用으로살바탕을整齊하며分泌物를調節식히는近代的化粧料임으로써입니다。

거츠름性과脂肪이끼는분에도

몰니지안코어엽부게잘먹는것도當然한理致입니다。

산뜻한色感、高尙한香薰

여들가지新鮮한色味는살결의個性美를마음끗살니며高尙한香薰과함께顔色은마치어엽부게피여난꼿과도갓습니다。

肌色 나츄렐
濃肌色 白色
健康色 오-클一號
부류 오-클二號

바다에나山에서이것만어스면여름철도明朗!
化粧이밀닐가염려하야남몰내
콤팩트를디려다보는手苦은안하게되십니다

マンテン石鹸 ウテナ化粧料 本舖·東京·久保政吉商店

11.7—6.2

代作物은晚時之嘆
移秧畓도樂觀不許
十餘年來처음보는凶兆라고
平南農村에不安漸加

【平壤】평남도내의벼농사짓는면적은 대체로 팔만삼천여정보로 종래에는 칠월상순까지에 팔할오분가량의이앙(移秧)이필해젓슴예상으로 일할내지일할오분는 단념햇다고 할수밧게업다

그리하야 남어지일할마정보내외의비싼송면적에는 무슨대작물을 심거야는것지만 심으게만드러두코말엇다

그러나 지금 이앙한면적에도 벌서물이말라버린곳이만허 그것도대부분은 전도가매우념려된다고하며 밧곡식도 비가오지안허 타버리고잇는데다가 해충(害虫)까지 번식하여 먹어버리고잇는 현상이니 평남농촌의우울과 락망을 짐작할수잇다

더욱 대정팔년이후 근이십년동안은 우순풍조하여 풍작을모든든비교적천혜의 혜택을 만히 바더오든 평남의농촌인만큼 금번의이흉작예상은 의외에도큰랑패와절망을 농민들에게 주고잇는터이라한다

山城鎭幼稚園 園舍新築落成

【山城鎭】당지 긔독교회에서는 동포아동의 보육을 목표로수년내로 유지원의 설립을 계획하여오든바 금번사립에 이르러서는 실현의동에 착수하여 일반독지가에게 의연금을 모집하엿든바 안외에호성적으로 일천삼백여원의 거대한금액을 어더슴으로 즉시 현재례배당겨테 오간의 원사를 건축하든중 최근에 준공을 보게되엿슴으로 지난삼십일 오전십일시부터 일반유지의 초대와 교인의집합으로 락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는데동 공사에잇서서 롱심내지정신적으로 진력을다하야 희생하여오든 로지 전경모(全正模)씨의 표창적상품수여도 잇엇다한다

江西署高等係員이
青年數名을檢擧
內容은秘密結社事件?

【江西】강서서고등계에서는 지난삼일에 강서군증산방면(江西郡甑山方面)에서 청년수명을 검거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는대 그내용은 극비밀에 부치으로 상세히 알수는 업스나 모종의비밀결사사건인듯하다고한다

些少한執頭로 두사람을刺傷
犯人逮捕嚴調中

【元山】지난칠일 오전한시경원산부장촌동이백삼십사번지(元山府場村洞二三四)명사식당(明沙食堂)에사람을 차즈러온 장촌동이백 삼십칠번지 중학정웅(中鶴正雄)(二四)이란 자가 그집에 술먹으러온 두남리(斗南里) 김의봉(金義鳳)(三二)이가 자긔와이야기하는 명사식당주인 정달오(鄭達吾)(四一)와 술을가티 먹자고하는것을 차고단기든 길이다섯치가량되는 장도(粧刀)로 오른쪽목을 약한치가량찔르고 다시정달오의 왼쪽가슴을 약삼치가량찔러서 현장에 선혈이림리하게 한후 칼을 빼여가지고 다라나는것을 중상을당한 정달오가상처를 부둥켜쥐고 그곳에서 약이십간되는 지점에서 붓들고일대란투를 연출하고 잇는것을 마침 선잠을깨고 일어나온 부근사람들의 조력을어더 무난히 붙들엇다 이급보를 접한 원산서에서는 곳그를 붓들어다 방금 엄중 취조중인데 전과 중학은 그날 명사식당에와서 맥주세병을먹고갓다가 다시한시쯤되여와서 리모(李某)를차지므로 주인이업다고하얏더니 그는 와잇겟는데 업다고하느냐할때 전긔김의봉이가 그사실을물으고 정을들어와 술을먹자고하는것을 그와가티 예리한단도로 찔는것이라는데 생명에는 관계가업스리라하나 이상주일을요할 중상을입엇다고한다

背信의분푸리로 虛僞強盜告發

【江陵】어리석은 여자의 당찬흔 허위강도고발로 경찰서장이하가 총동원하야 일대소동을이르킨 넌센스 극의한토막=양양군강현면용호리(襄陽郡降峴面龍湖里)에서 술장사하는 김국매(金菊梅)(三一)는 롯칠이십팔일 그곳 주재소에와서 자긔는 지난새벽 그이웃동리 공현진(公峴津)에볼일이 잇서서갓다가 새벽한시경 공현재를 지날때 어떤사내가뎀벼드러 돈을내라고 함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끄내주려하얏드니 그는 주머니칼로 자긔주머니를 뭉텅잘러갓다고 고발을함으로 주재소원은 크게 놀래여 본서로 급보하게되자 본서에서도 즉시 부하오명을 서장이인솔하고 현장에가서 여러가지로 조사를 하얏스나 고발한자의답변과 실지가 부합하지안홈으로 추궁한결과 의외의 사실을고백하야 취조중들을 아연케하얏다 사실은 그는 고성군간성면상리(杆城面上里)에사는 무직 남일현(南一鉉)(三○)을 지난이십칠일 봉현리에서 만나서로 점심을가티 먹게되자 남일현은 자긔를보고 집에갈나면 내가바래다주겟노라 함으로 남일현과가티 집으로도라오는도중 오호리(五湖里)라는데 이르자 남일현은 자긔를붓들고 ××성교를 강요함으로부득이 송림중에서 몸을허락하얏는데 관계를맛춘 남일현은 처음말대로 다려다주지안코 처음와잇든길로 도로감으로 그는무서움을간신히 참어서 집에와 곰곰히생각하니 참으로 원통하고 분함으로 그에게 분푸리를 해주려고 그와가튼고발을 한것이라고한다

南原郡下의麥作
萬餘石減收未免
旱災와霖雨被害로

【南原】거년겨울에 혹한으로말미암아 소맥에해가만혓섯는대이제와서는 소맥수확기에 맛치장마가 계속하야 남원일군은 보리흉년을 맛나게되엿다 군농회(郡農會)에서도입할오부는 감소하얏다고 추상한다하며 맥작경지면적 팔천삼백삼십정보에 대한 평년작칠만석에 대하야 일만오백석은 확실히 감수될한모양이라한다 그런데 이영향을심히밧는 세농가에서는 보리까지 큰흉년을맛나 설상가상으로 끈난을당하고잇다한다

뽕뽕菓子機爆發 二名重傷騷動

【新義州】지난칠일 오전팔시쯤 강계군강계읍동부동(江界郡江界邑東部洞) 일천십사번지 박치록(朴致祿)(四四)의소유 곡물팽장기(穀物膨脹機)가 폭발되여 박로인의 아들자용(子用)(一六)은 얼골기타에 이주일치료를 요하는 중상을입고 부근에잇든 송긔숙(宋紀淑)(六)이란 로파는 철편(鐵片)이뛰어나 올흔편팔(右腕)뼈가부러지고 동맥(動脈)이끈허저 생명이위독하다한다

延安支局主催 經濟大講演會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延安】본보연안 지국주최와연안공영상회(共榮商會)후원하에본사주필 서춘선생(徐椿先生)의 경제강연회를 좌긔시일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본보애독자급 일반주민 제씨는 다수래청하야주기를 바란다한다

一、時日 七月十六日午後八時

一、場所 延安禮拜堂內

七十老婆의 鐵道自殺
原因은悲觀?

【舍人】이세상은 얼마나 괴로와가 여생이얼마안남은 늙으로파의 끔찍한 철도자살=평남순천군사인면덕산리 리정균의 계모정일룡(丁一龍)(六七)은 지난오일 오전두시사십분경 사인장역을 통과할북행림시렬차가 전과동리연홀 지나갈제 뛰여들어무참한 최후를마치고 말엇다는바 그는 무슨일로 얼마남지안흔생명을 무서운차바퀴속에다 던젓슴가 이것은 누구는 정신이상이엿다고 말하고잇스나 하여튼 살기를 실현하기까지에는 어떠한비애가숨어잇슴모양이라고한다

會寧地方에는 豐年을豫期

【會寧】풍년드는해는네로부터 전하여오기를 오일일풍 십일일우(五日一風、十日一雨)라하더니 금 회령부근일대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하야 지금현상으로는 초복(初伏)전 곡초가 이처럼잘 하여보기는 드믄일이라하야 일반농가에서는 기뻐마지안는다고 한다

染病걸려죽은者 半個年間三十名
新興都市興南邑에서

【興南】일시맹렬한 형세로 번성하고잇든 흥남의 염병도 금년에드러서는 그세가 부건하는듯하여서 금년일월부터 륙월말까지에 전염병발생건수 칠십칠건중 사망자가 일본내지인이십명 조선인십명 합삼십명이라한다

同席飮酒中에 酒朋鬪打即死

【平壤】성천군숭인면창인리(成川郡崇仁面昌仁里) 장재덕(張在德)(四一)은 오일오후한시경 동리 고영규(高榮奎)의 집에서 차인준(車仁俊)외세명과 술을마시든중 시비를일으켜가지고 차인준을 몹시따려 차인준은 그자리에서 죽어버리고마럿다 이소식을들은 성천서에서는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장재덕을 체포하는일방 시체를 검사하는중이라한다

人氣百〃퍼센트〃의 朴景姬孃獨唱會
十一日로期日切迫

【平壤】사회사업기관인 평양애린원(愛隣園)과 맹아학교(盲啞學校) 주최와 본사평양 지국후원으로 개최되는독쏘프래노신진명가수 박경희(朴景姬)양의 독창회가 고봉경(高鳳京)양의반주로 십일일오후 여들시삼십분부터 백선행 긔념관에서 개최하게되엿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긔일의박두해짐을 따라 주최측과 후원측인 본사평양지국 에서는 준비에 펵도바쁘다 출연자박경희양의 성가는이미 세상이넘우도잘알고잇는일이며라디오를통하야서도 귀에익숙한바이다 박양의독창은 평양에서 처음인만큼 박양의옥성을 드를수잇는긔회가 만드러젓고 특히박양이 평양태생인만큼 그인기는비상히고조되여 입장권은 발서부터불이나게 팔리우고잇다 두가련한 사람들을 수용하고잇는단체를 동정하고 전재적박양의 노래를 감상한다는 의미로서 만흔동정이 쏘다지기를바란다고한다

光州 教育大講演會

▲時日 七月十日午後八時

▲場所 未定

▲演題 義務敎育論

▲演士 本社編輯次長 咸尙勳氏

◇主催 光州癸酉俱樂部

地方人事

▲馬範寅彥氏(忠州警察署保安主任) 陰城警察署警務主任榮轉人事次本報忠州支局來訪

▲李章熙氏(仁濟醫院長)開業人事次 本報群山支局來訪

▲恩田宗五郞氏(前安邊警察署長)北靑警察署長榮轉人事次本報安邊支局來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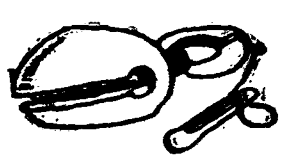
▲山田貞市氏(前安邊警察署巡查部長)高山警察署榮轉人事次 同上

▲平田虎喜氏(前安邊專賣局出張所長)庫底出張所轉任人事次 同上

▲安擇遠氏(河北金融會長)新任人事次 本報營口支局來訪

▲李鳳韶氏(營口農村農務聯合會長) 同上

愛慾의彼岸 【46】
李光洙 作 金康穆 畵



문임은 은주의 몸에서 떨어저서 아까안젓던 교의에 물러나와 안즈며、

『김장로만이 아닙니다、돈이제일이라구 생각하는것은 돈 가진 사람은 다 하는생각인가보아요。혜련이두 그러케 만사에 마음이 조흔 애지마는 돈업는 사람은 아주 사람으루 보지안흡니다。아주 그애가 돈에 대한 교가 잇습니다。돈 잇구두 돈ㅅ교 업는 사람이 어듸 잇서요? 혜련이가 설선생을 자긔와 평등으루는 보지안흡니다 도주히 연애니 혼인이니 헐수잇는 계제루는 보지안습니다。제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겟지요 그런줄 알아요。설선생두 돈이 업스시다구 멸시를 허는데 제따위가 무엇입니까。그러니깐설선생이 아무리 애를 쓰서두혜련에게 대한 사랑은 성공 못하십니다。혜련에게는 벌서 마음에 먹은 사람이 잇는걸요、저 제대에 다니는 시굴 부자의 아들입니다。혜련이가 설선생을 조흔 사람으로 아는건 사실이야요。그러치만 배필될이루는 아니봅니다。김장로두 설선생이 일을 잘 보시구 돈을 잘 벌어드리니깐 시임은허시지만 그러케 교시긔 잇는이가 설선생께 딸을주겟서요? 어림두 업습니다。김장로가 돈업는 사람을 얼마나 낫추 보기에——얼마나 사람이 아니루 보기에 저를 첩을 삼으려들겟서요? 돈을 만히 주께 가티 살자구、그런 모욕이 어듸 잇서요? 돈만 준대면 아모런 게집에두 다휘어들줄 알구——장로두 그러니 다른 사람은 더 말헐것 업겟지오。그러니깐 저는 그것이 분해서라두 돈 한푼 업는어른을 사랑하랍니다。그 사람들이 돈으루 사람을 정복하려 드니 저는 사랑만으루 사람을 정복해보랴구요。저는 학교두 다 고만둘테야요。돈 업는 년이 학교에를 어떠케 다녀요。또 다른 사람헌테 학비를 구하더라두 그 사람두 또 김장로가 생각하는것과 가튼 생각을 하겟지오。그러니、선생님 내게 정복되어주서요。더러운 돈ㅅ관계업시 깨끗하게 정복되어주서요。오늘 여긔서 우리 혼인을 하서요。목사를 청하재두 돈이 듭니다。예배당을 빌재두 돈이 들구요。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듸 잇서요? 우리 여긔서 혼인해요。고아는 고아답게、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답게——아모러기루 설선생이나 제나 혼인을 허락할 사람이 어듸 잇구 못허게 헐 사람은 어듸 잇서요?』

하고 손을 내어민다。

은주는 아니 놀랄수가 업섯다。은주가 마음속에 가지고 잇던 조선 여자라는것은 이러한것이 아니엇다。수집고、속에 잇는 말을 겨우 눈으로 낫빗으로나 하고、남편이 끌 때에도 억지로 끌리는 그러한 여자엿다。은주는 문임도 그러한 여자로 알앗섯다。그랫더니 문임의 서슴지안흔 말、흥분은 하엿슬망정 태연한 그 태도——이런것은 은주로는 처음보는것이엇다。

『요새 여자들은 다 이러케분명하고 활발하게 되엇슬까』

하고 은주는 놀라운 눈으로 문임을 바라보면서 거의 정신업시 문임이가 내어미는 손을잡앗다。

문임의 말은 다 올흔것 가티 은주에게 들렷다。제가 지금껏 생각하던것——김장로가 아부지의 친구로서의 호의——김장로에게 대하야 느끼던 은혜의 관념——혜련에 대하야 느끼던 그리운 마음——이 모든것이 다 싱겁고 어리석은것가티 생각햇다。세상은 다 그러한 예투겁을 벗고 걸어나가는데 저 혼자만이 뒤에 떨어져서 그러한 생각을 품고 얌전하게 잇던것 가티 생각햇다。

은주와 문임과 두 사람은 밤ㅅ동안 한 잠도 일우지못하엿다。처음 절반은 꿈가튼 흥분속에、그러나 다음 절반은 압날 일에 대한 근심ㅅ속에 들이서 혹은 가튼 생각으로、혹은 저마다 제 생각으로 잠을 일우지못하엿다。그러다가 첫전차가 굴러가는 소리를 듯고 두 사람은 한번더 껴안고、

『죽거나 살거나 함께합시다』

하고 맹세를 하엿다。

奏効如神

鷄冠蚊香(게관모기향)

鷄冠蚊香의絶大한信用은 實로그効力에잇습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불이오래타고효력이제일조흔

『게관모기향』이라고차즈십시오

大阪 土佐堀三

(上)日本除蟲菊株式會社

●腦의疲勞

執務讀書 工夫徹夜等으頭腦過勞時에

ノーシン(노ー신)

을服用하면即時頭腦의疲勞는速히快復하야

明快

해지며愉快히工夫할수잇는完全한腦力快復劑이다 全國藥店에잇슴

●

御贈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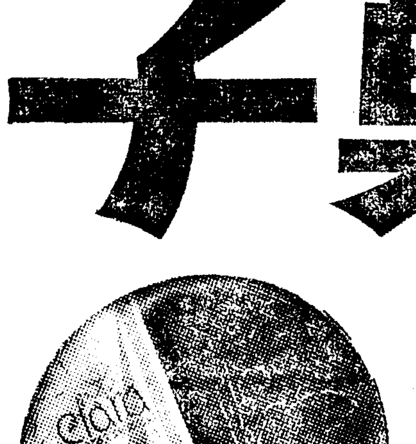
森永チヨコレート

森永ビスケット

森永ウヱフアース

森永ドロツプス

森永の菓子



子弟들게신家庭에서는 무엇보다도더즐겨하섭니다

森永製菓株式會社

Z-1

朝鮮內金融體系

朝鮮銀行券收收境遇는 朝鮮經濟所及影響如何

(五)……申泰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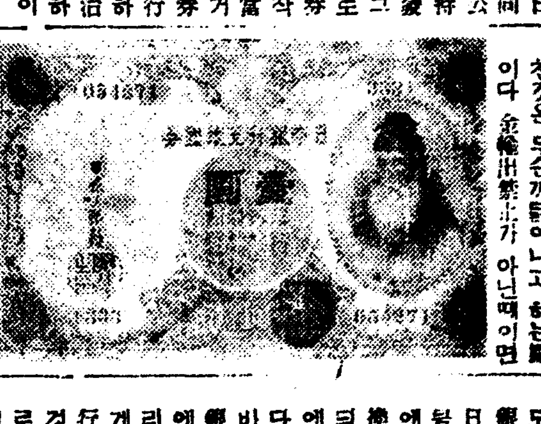
▲日本―明治初年에잇서는一定한條件을 設定하야 그條件만 가추게되면 누구든지 銀行을 맨들수잇고 따러서 銀行券을 各自發行케되엿다 卽明治五年에 米國내쇼날·뱅크를 模倣하야 國立銀行條例를 公布한바 이것은 政府에 公債를 바치고 이에對하야 銀行券을發行할수잇도록 되어잇는것이다 이에 關한最初의 規定은 十萬圓資本으로 그中 四萬圓은 金 또 六萬圓은 公債提供으로 當時의 國立銀行은 四個銀行이이섯다 그뒤 明治九年에 國立銀行條例를改正하엿다 卽十萬圓資本中 二萬圓은 通貨(當時政府의紙幣)또六萬圓은 公債로政府에 바치고 銀行券을 發行하는 限度를 擴大하엿다 그結果國立銀行으로서는 政府에 바친 公債로부터 利息을 밧고 또 一面으로 銀行券을 發行하야 高利로 運轉하는 利益이 相伴하엿다。

×

그래서 明治九年의 銀行條例改正後 國立銀行의 數가 激增하야 百五十三의 國立銀行이란 最多數를 나타내기까지 이를렀든때가 잇섯다 그結果當時의通貨는 政府의 不換紙幣와 國立銀行發行의 銀行券이 併行的 流通되엇든바 이것은 一種의 인풀레로 볼수잇는것이다 그뒤 明治十五年에 日本銀行을 創設하여가지고 同十八年에 兌換銀行券條例가 公布되고 이에따하야 日銀에特權을 附與하야 日本銀行券發行의 첫거름을 내노앗다 그結果는 政府紙幣는 日銀으로 兌換케되고 一面 國立銀行券도 銷却함에 손을대이기 시작하엿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當時에 通用되든 政府紙幣를거더드리고 그代身으로 日銀券으로 通用케하고 또國立銀行券은 漸次銷却을 하도록하엿다。그다음에는 畢竟 明治卅年에 日銀券으로 統一케하여가지고 오늘까지 일운것이다。

×

이곳에서 [illegible] 必要가잇는것은 朝銀券, 臺銀券, 日銀券면 다만 朝鮮銀行券, 臺灣銀行券이라고 씨여잇는데 日銀券은 特別히「日本銀行兌換券」이라고「兌換」의 두자를 더부친것은 무슨까닭이냐고 하는點이다 金輸出禁止가 아닌때이면



(寫眞은日本銀行券)

金貨로 兌換되든 朝銀券이 日銀兌換券과 가른價格을 갓게되다 或은 朝銀券은

金貨 또는 日銀券으로 박꾸어준다고 되엿슴 가지고서 그理由를 상들사람이 잇슬는지 모른다 그러나 朝銀券이 日銀券으로 兌換된다고 하엿지 日銀券이 金貨로 兌換되는만큼 다만 二派의手續을밟음에 不過하다 그러면 이 兌換의 두字를더부친 理由가 어되 잇는가 하에잇서는 지금에 일으러는 아모意義가 업다 卽日銀券에 對하야서 말한다면 이것은 日本銀行의 銀行券을 처음으로 發行할當時에 잇서서 政府紙幣를 거더드리고 그代身으로 日銀券이 通用되엇든때문에 國立銀行의 銀行券을 밝히 區分하기爲하야 일부로「兌換」의 두字를더부친것이 지금까지繼續되여오는것이다。

×

▲朝鮮―朝鮮內에銀行券이 通用되기는 第一銀行券의 朝鮮內流通을 그 最初로 잡게되다 卽明治十一年 日本內地에 本店을 둔 第一銀行(舊第一國立銀行)이 처음으로 釜山에 支店을 設置하고 따러서 第一銀行券이 朝鮮內에도 流通되기시작하엿스며 同時에 이것이 事實로 朝鮮內通用의 銀行券을 獨占하는地位에 잇게되엇다 그뒤 明治四十二年 朝鮮에도 비롯오 中央銀行으로 韓國銀行을 創設하는 同時에 第一銀行券의 [illegible]을 撤收케하고 그銀行券을 韓國銀行이 업서지는 同時에 中央銀行의業務는 朝鮮銀行으로 너머가 오늘까지 朝鮮內에는 朝鮮銀行券의通用만을 보아오는터이다。

×

以上으로써 오늘까지의 銀行券에 對한 由來가 어떠한것임을 大略으로 짐작할수가 잇고 따러서 朝鮮內朝銀券의 流通에對한 意義가 핫이 目下 限前에 노히게된大略을 떠이回題의 核心點이다。―(續)―

朝鮮內銀行統制 分野確立을企圖

아즉具體化한바가 업스나 總督府首腦部考究

大藏省에서는 一縣一行主義를目標로 全國銀行統制에 進出하엿는데 朝鮮에서도 數年前부터 斷行되면 金融統制工作의 最後的의것으로서 朝鮮內銀行統制問題가 總督府首腦部間에 考慮되어잇는바 右에對하야 今井田政務總監은

朝鮮內의 銀行統制는 이미하여왓는데 좀더하여보고저하나 勿論 아즉 何等具體化한것은 업스나 朝鮮內의 銀行分野를 普通銀行、貯蓄銀行、不動產銀行、等으로 分明히 設하고저 생각한다

라고 말하얏는데 이에 依하야 總督府上層部가 一段突進한 統制斷行의 意思가잇슴이 明確히 되엿다 朝鮮의 銀行統制는 現在大藏省이 손을대인것과는 多少相異함은 勿論이오 金融界方面에서도 原則的으로는 贊意를 表하나 日本內地銀行과의 關係 中央銀行으로서의 朝銀의 問題 統制形式等 자못때리게ㅣ든하고 困難한 許多한 問題가 橫在하고 잇슴으로 果然어느程度까지 現實化될지 또는언제나 實現될지 等에 對하야서는 全혀 豫測을不許하나 問題의 重要性으로그 形勢는 特히 注目되는한다

題가 近時全中的으로 旺盛하야 朝鮮產의 輸出貿易은 또 梗塞되어잇다 라는 情報가잇서 重大視되다한다

富寧水力電氣 不遠間創立認可

東拓을 主體로하는 富寧水力電氣會社發起人으로부터 鑛者富寧水力開發의 許可를申請中이더니 七日附 許可되엇다 富寧水力은 豆滿江水系城川江의 물을 輸城川水系富寧川에 끌어서 發電하는것으로 發電力은約二萬七千키로와트이며 第一期發電計畫中에 잇는 水力地點이다 富寧水力電氣會社는 資本金一千萬圓으로 第一乃至第三發電所를 建設하야 合計一萬七千키로와트를 發電하고 그發生電力의全部를 長津江水電會社에 供給하라는것으로 느저도 昭和十三年末까지는 發電을 開始할豫定이다 그리고 同水力電氣의 發電約三萬八千키로는 全部朝鮮電力에 賣電키로되엿다고한다

朝鮮內政府持米 正租拂下를準備 仁川、鎭南浦在庫七萬石

農林省의朝鮮內所有 朝鮮米拂下는 現下의米價事情으로보아 不遠에行할모양인데 農林省에서는 玄米보다 먼저所有正租 七萬石(仁川、鎭南浦在庫)를 拂下할모양이므로 最近 그拂下를 準備中이라고

朝鮮內海運界 夏枯期에드러가

最近의 日本內地와 朝鮮間航路荷動狀態는 米價高에 依하야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이 激減되고 特히 北朝鮮方面은鰯의 不漁와 拉賓線의 不通에依한 北滿貨物의 北朝鮮三港流出이 杜絕되어잇슴으로 全혀 寂寞한데이 反對로 日本內地로부터의 西朝鮮北朝鮮에의 移入貨物은 세멘트工事材料其他雜貨의 積荷가만코 各航路各配船은 全部往航만 滿船狀態이며 復航은 船腹의二分一에도 達치못한 狀態로 船會社는 모다 외쪽임으로 困難하다한다

京城食料品會社 創立準備를完了

京城南大門商人에 依하야 發起된 京城食料品株式會社는 過般以來 [illegible]에 創立事務所를 設하고 創立準備를 하는中인데그 資本金百萬圓 株式二萬株中에서 發起人이 一萬七千株를 引受하고 그남어지 三千株의 公募株도去月三十日까지 申請을 完了하고 各其保證金을 徵收하얏는바 第一回拂込은 八月中旬以內로 될모양이며 八月中旬頃에 創立總會를 열豫定이라고한다

그리고 營業開始는 夏節閑散期를지나서 九月부터 하게되리라고한다

取引停止 (七月四日)

▲米穀商 京城府堅志町 八四番地 朴[illegible]鉉
▲電話賣買商 京城府大門通一丁目三番地 張錫完
▲請負 京城府昌信町四六四番地 [illegible]植
▲金融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番地 黃信愛
▲帽子商 京城府堅志町二七番地 大京洋行 李東鎬
▲雜貨、帽子商 京城府鍾路一丁目四三番地 劉元相
▲織物帽子雜貨卸商 京城府安國町一五五番地 大京洋行 禹命濟
▲米穀商 京城府鍾路五丁目一一八番地 李達愛

○突飛?한 金融 잘하는 加藤朝銀總裁

○最近은「大學廢止論」放言 돈 萬圓식 들여어 二十五、六歲까지 學校속에 석이는것도 不經濟러니와 高等遊民製造를 歡迎할인듯

○요다음 政變이 잇거던 文相運動이나 해 보시오 朝銀榮止論까지 생긴 이판이니

經濟界消息

○鮮滿東亞勸業買收東亞讓步說=鮮滿拓殖創立의難關인東亞勸業買收交涉은 東京에서 協議가 決裂되엇스나 同社創立은 急을要함으로 繼續協議會를 來十日 總督府에서 行키로되엇다 交涉關係者의 鮮滿社長及滿鐵代表者는 一兩日中 入京할터인데 問題의 東亞의勸業評價는 滿鐵側이 相當히讓步하야 解決되리라고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長更迭=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長 眞田立氏는 六日附 本省經濟更生部副業課長으로 轉勤하고 그後任으로 本省에서 農林事務官 安孫子藤吉氏가 來任키로되엇다고

○朝石來月販賣開始=四日元山港에入港한 [illegible]東亞丸으로着한 朝鮮石油게롤마레原油 一萬二千

三石油既得權 各代表入京折衝

朝鮮石油의 營業에伴한 日本內地石油會社의 朝鮮內撤退問題에 對하야 總督府當局과 折衝키爲하야 七日午後三時二十分 高草小倉石油營業部長 新潟三菱燃料部次長 富岡早山石油總務部長의 三社代表가入京하야 八日總督府를訪問하고 今井田政務總監 穗積殖產局長과會見하고 既得權의 措置에關하야 總督府의 善處를 求할터인데 三社側은 大阪撤退의 意趣를明白히하고잇는것가름으로 問題는既得權를 如何히할가에잇고 會見結果는 注目되는다 한다

肥料資金 特融增加 第二次三百萬圓

農產物價가 多少 昂騰을 보게되며 農村景氣가 好況을 呈하게되자 農家의 金肥需要도 增加하야 肥料資金의 需要가 늘어 其間 今年度分으로 特別資金의名目으로 二百萬圓의 低資

江原旱魃念慮

江原道內의 水稻는 移秧後用水不足으로 比較的用水가 豐富하엿든 中央水利를 비롯하야各地水田이 모두枯死狀態에 빠지고 今後十日間에 降雨가 업스면 收穫을하게될모양이라고

朝鮮對中貿易 又復梗塞의念慮

對中朝鮮貿易은 事變의打擊이겨우恢復되어 十一年上期와如함은 對中輸出이 人蔘、海產物等이軌道에乘한 觀이잇섯스나 最近總督府對中水產組合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北中國輸入[illegible]

局鐵輸送計畫

七月中旬의 出貨豫想은 [illegible]

天水畓의五割를 安全畓으로轉換 ◇……農林局에서計畫

年年廣大한 旱水害發生의 一面不健全한 開畓의 勃興은 農林局에서도 괴로움게알고잇는데宇垣總督의 旱害根絕의指示도잇서 農林局에서는 十二年度以降根本的 天水畓對策에進出키로 決定하고 土地改良課와 農產課에서 具體案을 硏究中이다 卽 方法으로는

一、水利不安全畓의改良=所謂天水畓面積九十萬町步中 若干의施設改善에 依하야 安全畓으로 轉할수잇는 四十萬町步를 十二年度以降十個年計畫, 總經費二千萬圓으로 改善함

一、地目轉換의 遂行困難의 天水畓米作에는 旱魃其他로도救濟를 講究치안코 棉其他工業用作物의 栽培를獎勵함

의 二項目을 內容으로 한것으로 天水畓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코저할意向이라한다

米日爲替保勢 (六日七日發同盟)

七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illegible]

重要商品界事情

人絹前途 高價를警戒

供給超過의 不安으로 發端되야 統制問題의紛糾 또는 原料州의 關稅引上等으로 惡材料가 繼續하야 一般人氣가 緩慢하고 各方面의 空賣를 助長케한結果 多少의 反動高가 나타내엇다

◇

그러데 統制의 變動에 [illegible]이잇고 또妥協도 不可能하던은 人絹業界에 不安의망을 갓게하지만 이問題만 圓滿히 解決되면 會社는 코스트(原價)의 關係上 六十圓以下의 低價에 팔수업스므로 低價는 操短其他의方法에 依하야 阻止함에 힘쓰고 將來라도 一般이 懸念하는程度의 供給超過를 안보게될 것이며 昨今의 需給關係는 [illegible]

外電 好調인모양이며 海外도 織物은 印度南洋을 비롯하야 相當히 輸出되고 또 原絲의 大連輸出도 時節關係上 展開할機運일에 잇다。

◇

內外가 모두 統制時代로海外의日本商品防遏도 嚴重케될것을 생각하고 따러서 從來와 가튼 急速한業績의 增加는바랄수가업다 結局織物은 高級化하야 金額으로 그不足을채우게될것이므로 高價賣는 警戒할바이라는論議이잇다

地場賣、客側買

東新은 百卅圓을回復한後 한숨돌리고잇는데 이大關門은 强弱雙方에잇서 자못重大한地位에잇는것이니 强氣로서 말하면 二番底形成이엇스니 增資懸念解消

東新伸力不續

四日取引所株中心의好勢로 東新百三十圓關門換回의 反撥을示하고 大新도七十二圓臺乘이엇스나 國策閣議中은 高價를買進할수업서伸力이不續이고 通貨膨脹、物價昂騰을必要로하는 不透明商狀을 거듭코잇슬뿐이다 國策審議에當하야서는 個個의軟材料에眩惑할것이 만흠 高所大局的으로 着眼하다 면賣할수업다겟스나 增稅、統制의不安이一掃되것이아닌만큼 關係進行形勢如何에依하야는 다서 賣되기쉬운情勢에 處해잇는터이라

後場大新高

後場은 大新이 七十二圓九十錢에 好勢上進이고 其他는 依然伸悩하야 東新百三十二圓七十錢、日產七十四圓七十錢 朝新三十二圓六十錢、日鑛七十圓八十錢 朝石十八圓三十錢、北紙二十四圓三十錢에 各大引

實物前場取引

▲東滿[illegible] ▲帝國火藥 ▲日滿아르미 ▲南國產業 ▲도례지鑛業 ▲滿洲棉草 ▲大同產業 (取引高 一四〇枚)

株式 大新高外 伸惱

商況 (八日)

[illegible] 六日 支那이엇시 原油와共히 上海一路로 보고잇것고 [illegible] 收容하엿는데 今 軟派로서는 眞正大底未了로 斷하고잇는만큼 防戰不意인바 東京大阪의東新戰은 地場下買成에 客興買向으로 마바라買付가 相當하다하며 强氣는 今後떠러지면 놋치안코 逆行買를 하고저 虎視眈眈이나 軟派는 不絕히 戾賣方針을 取코잇다한다

前場保合

前場은 騰勝力이업시高價保合이엇다 卽昨後引에比하야 東新十錢低인 百三十二圓七十錢 日產十錢低인 七十四圓八十錢 朝新二十三圓三十錢 鐘新百五十七圓八十錢 大新七十二圓九十錢 拓新二十二圓九十錢이잇다

日產舞臺登場

七十圓以下에서오래동안 低迷는 日產은 七十五圓臺로 形勢一變騰되엇는바 一個年餘를 七十圓中心으로 保合하야 底價는 試鍊인만큼 日產에舞臺가오는것이라고보아도 大差업슬것갓다

事業株는跛行

軍需景氣膨脹은 軍需工業株를 締는하나 事業株全般은 跛行商狀의範圍를 버서나지못하고잇는터이다

商勢隱然下遊 低落一巡乎

客月中當地三十二圓七十錢으로 昭和二年以來의 最新高價로 此를目하되今年의 天井이라고도 하고 或은아즉도 그以上의 高價가잇슬것으로 觀測하는 强派도 잇다 當地三十二圓七十錢을 示現한後 幾度의 波瀾을 惹起하엿스되 그以上의 高價를 示하지못하고 客月末의低高를 비롯하야 今月에入하면서 又復一落을 告함에 至하엿다 아즉도 餘勢는 弱하는하나 朝鮮中部의 降雨量이 治足하지못한狀態 强材料視하야 群衆買物이 續出함으로 商勢는 漸然中 下落狀態로 보고잇다 今年米界의 二年繼續의凶作이란 主張에는 買方針을 捨할수업스나 그러나 其實은 朝鮮의在米가 昨年同期보다 各港在庫만으로도 五十萬石의增加를 示하고 日本內地로서도 朝鮮米를 吸收하지안코 需給을維持할수가잇다 供給의不安을 늣기지안는다 그럼으로 今後稻作狀況이順調로나가는때는 今月은六月天井이되지안을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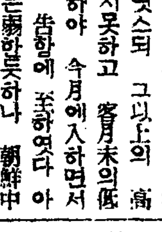
後場低落

後場 三十一圓三十九錢에 二丁低로 結局四十一錢 第二十八錢에 低落不勢이고 三十錢에 止場하다

期米 賣氣優勢 低落

前場少弛

昨後場阪地三十一圓四十五錢止와 共히 三十一圓四十四錢에 寄引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六十六錢인 一丁高를擧하고 三十一圓四十一錢인 三丁低로落場



(株)……百三十二圓臺도 보이저 못하는 東新 四日急反撥의好勢도 [illegible]요모양인가?▲軟派의 無理한 反撥때문인가 더올줄기운이 自然에 엽는때문인가▲軍需株에 買氣가잇는外는 보잘것이 업는中에 日產의 好轉은 十分吟味할만한일▲日產의 舞臺가 展開될 듯한비 果如何▲解散해도 百圓은 넘더하니 九十圓까지市勢가 나올지도 모르지…

(米)……堂島市勢는 昨今田中貞의 買進으로 下落狀態를呈하고 當地亦是此에 追隨하야 底堅味를添하다 ▲此際의 反動高가 全혀仕手의 關係라하면 賣方의 本陣에는 馬越老가 虎方도 相當 ▲그러나仕手의關係는 一時的이오 大勢는主的 材料의 如何에 動하는것이즉 强材料를 追躡하기만不如 ▲目前의 現象으로는 日本內地의 稻作狀況이 良好한모양이오 朝鮮도 三南地方만은 良好하며 買方針만을 固執한다는 것도考慮할問題

田中貞猛烈買 阪地를本營삼고

一時馬越老의 猛烈賣로 一段瓦落을 告하든 阪地市勢는 昨今에入하야 田中貞의 雪辱買物이 現出하야 頹勢를 防止하고 잇다 此兩派는 可謂堂島天下의巨頭로 그決戰이 將次如何할지는 몰으나 目下의形勢만으로는 軟派가 優越權을가지고잇다하여도 過言이아니다 日本內地稻作狀況으로 보면 植付期의 旱害가 업지안앗스나 其後 好雨를 豐來하야 悲觀人氣를 一掃하엿스며 朝鮮의 植付狀況으로 본다할지라도 中部地方은 아즉도 四、五割程度의 移秧밧게 아니되엿스나 其他地方은 大體植付完了로 朝鮮의 米倉인 三南一帶는 벌서부터 豐作說을 例하다 아즉 天災期가 遼遠한今日에잇서 大勢의 如何를 速斷[illegible]

今日財界 (八日)

◆米 仁川期米 大阪期米 三品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朝新 東新 日產 [illegible]
◆府中金銀價 金塊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保合 (大阪電話)

天候不良으로 買氣强케하얏스나 高價에는買氣不添이오 軟派의戾賣로 壓迫되고 雙方共히 戰意업시閑散이엇다
賣方=地場 海撥 正米側 中東側
買方=田中貞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閑散

依然不賣不買의 無凡狀態에서 脫却치못하고 市勢保合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不勢

日本內地는拂下米蓮萊米에壓抑되어 買氣更히不振이오 依然無活氣閑散 場面에서 脫却치못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三十五錢

釜山保合

定期不透明으로 推移되엇스나 市場實物薄으로 底堅保合인 角ヶ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十三圓三十四錢

大邱軟調

正租高에 後援되어 容易히 賣物을 蓮萊치안코오나 定期의伸惱와 不賣行繼續으로市勢十錢低唱인 角ヶ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群山不變

高價를생각함이 深甚하야 賣物은 極히僅少한 一方買行不引立으로 依然買伸惱

木浦商調

天候無好轉 [illegible]

市況表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錦絲布市勢 ◆京城綿布 ◆綿糸粕沖價 ◆綿油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海外經濟 ◆日本銀行勢 ◆朝鮮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朝取期米賣買高 ◆朝取期米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群山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紐育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米) 仁川 康益夏商店 京城 金益證券株式合社

株式 期米 玉 柳來根商店 仁川府本町 京城府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エ門商店